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32-01

국립국어원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 이준환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 이준환

국립국어원 2023-01-0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32-01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이준환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2월 27일

2023년 2월 27일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학교)

연구 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KOR 컨소시엄 국어국문학과)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학교)

공동 연구원: 조재형(전남대학교), 조경순(전남대학교), 최지영(이화여자대학교),
이수진(전남대학교), 유하라(성균관대학교), 임태운(남부대학교),
최 윤(강원대학교), 선한빛(전남대학교)

보조 연구원: 최옥정(전남대학교), 김다솔(전남대학교), 강은진(전남대학교),
이유미(전남대학교), 고상미(전남대학교), 하현정(전남대학교),
이지성(전남대학교), 오지수(전남대학교), 전철한(전남대학교),
박정은(전남대학교), 조하진(전남대학교), 김서홍(전남대학교),
미즈카이 유카리(전남대학교), 런 멩지에(전남대학교)

<국문 요약>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본 과업은 그간 독자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만들어 집적하여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과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항공 사고 용어』, 『항공 용어 사전』, 『철도 용어 사전』, 『항만 용어 사전』에 실린 21,326개 용어 가운데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하고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정의문, 사용 예시(용례), 관련 용어에 걸쳐 1만 개 이상의 용어 정비를 하는 데에 있다.

이 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정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항공 사고 용어』에서 14개, 『항공 용어 사전』에서 3,130개, 『철도 용어 사전』에서 5,832개, 『항만 용어 사전』에서 1,028개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을 하여 모두 10,004개 용어를 정비 완료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규범에 맞는 형태로 제시하였고, 구 이상의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원어는 『우리말샘』의 처리 방식에 따라 원어 정보를 표시하였다. 정의문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쉽고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하였다.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들은 의미별로 표제어를 분리하고 정의문을 제시하여 표제어당 하나의 의미만이 대응하도록 하였다. 각 용어는 의미, 계열어, 관련 용어의 분야 분류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에 걸쳐서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그리고 뉴스 기사, 정부 보도 자료 등에서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용어의 사용 예시를 찾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지를 드러내는 식으로 관련어 정보를 구축하였다.

주요어: 용어, 용어 구축 시스템, 표제어, 원어, 정의문, 분야 분류, 사용 예시, 관련 용어

<Abstract>

A Task on terminology maintenance and supplementation by specialized field in 2022

This task aims to maintain and supplement terminology that has been created and accumulated independently or sporadically in the Term construc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o manage terms stably and increase th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terminology use by words. The specific goal of this task is to select the terminology subject to maintenance among 21,326 terms in the Hanggongsagoyongeo(『항공 사고 용어』: the aviation accident glossary), Hanggongsagoyongeosajeon(『항공 용어 사전』: the aviation glossary), the Cheoldoyongeosajeon(『철도 용어 사전』: the railway glossary), and the Hangmanyongeosajeon(『항만 용어 사전』: the port glossary), and to improve more than 10,000 terms across headings, native languages, discipline classifications(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definitions, usage examples, and related terms.

In order to promote this task, this research team based on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but maintenance was carried out using the guidelines prepared by the researchers themselves. As a result, 14 of the terms in the aviation accident dictionary, 3,130 of the terms in the aviation terminology dictionary, 5,832 of the terms in the railway terminology dictionary, and 1,028 of the terms in the port terminology dictionary were repaired to complete a total of 10,004 terms.

The main contents of the maintenance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headings were written in Korean and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and the above phrases were marked with ^ between the components. As for the original language, the original language

information is displayed according to the processing method of the Urimalsaem. The definition text made the most of the definition text of the instrumental axis data, but it was made easy and clear to understand, and the heading was separated by meaning for things with various meanings. In addition, each term was determined to be specialized in major and middl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meaning of the term, the sequenc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related term. In addition, in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examples of use suitable for the meaning and part of speech information of the headline were found and presented as examples. Finally, related word information was established by presenting terms related to the heading subject to maintenance and revealing how it relates to the heading.

Key-words: terms, Term construc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eadings, original words, definitions, discipline classifications, usage examples, related terms

【요약문】

□ 과제명: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 과제 목표: 그간 독자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만들어 집적하여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이하고자 함.

□ 과업 수행 내용

- ① 용어 선정: 『항공 사고 용어』, 『항공 용어 사전』, 『철도 용어 사전』, 『항만 용어 사전』에 실린 21,326개 용어 가운데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함.
- ② 용어 정비: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정의문, 사용 예시(용례), 관련 용어에 걸쳐서 정비함.
- ③ 분야별 감수: 전문 분야 감수(용어의 내용 및 분야 분류), 원어 정보 감수, 국어·사전적 감수를 실시함.
- ④ 종합 검토 실시로 미시 구조 내의 정보의 일관성과 균질화를 추구함.

□ 용어 정비 지침: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하여 정비 지침을 보완하고 보완된 바에 따라서 정비 내용을 수정함.

□ 정비 과업 실시 내용

- ① 정비 용어의 개수: 『항공 사고 용어』에서 14개, 『항공 용어 사전』에서 3,130개, 『철도 용어 사전』에서 5,832개, 『항만 용어 사전』에서 1,028개를 정비하여 모두 10,004개 용어를 정비 완료함.
- ② 표제어 정비: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등이 포함된 것을 모두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고 규범에 맞게 제시하도록 하였음.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경계를 표시함.
- ③ 원어 정비: 표제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원어 정보 칸을 비워 두고, 한자어와 혼종어 속에 포함된 고유어 연쇄의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에 따라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음.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하되,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표시함. 이때 고유 명사의 경우는 어원 정보

를 안 밝힘으로 처리하였음.

- ④ 정의문 정비: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만일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는 식으로 정비함. 특히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는 기본 지침에 따라 “~A. 또는 B.”와 같이 뜻풀이가 된 것들은 분리하여 별개의 표제어로 용어를 집필하여 제시함.
- ⑤ 분야 분류: 용어의 의미, 계열어, 관련 용어의 분야 분류를 참고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전문 분야를 판정함.
- ⑥ 사용 예시 제시: 뉴스 기사, 정부 보도 자료, 보고서, 학술 논문, 학술 서적, 특허 문서 등의 검색을 통하여 사용 예시를 확보하여 제시함.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사용 예를 찾아서 예시로 제시함. 사용 예시의 구축 비율은 100퍼센트에 달함.
- ⑦ 관련 용어 구축: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지를 드러내었음.

□ 감수 실시 내용

- ① 전문 분야 전문가: 토목공학, 항공우주, 기계공학, 항공운항, 철도공학 등의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감수를 의뢰하여 내용 검토를 받고 검토 결과를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정비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② 원어 전문가: 영어 및 인구어 전문가 1명, 한자 및 일본어 전문가 1명에게 감수를 의뢰하여 표제어, 정의문 및 사용 예시, 대역어에 제시된 원어 정보 검토를 받고 오류 사항을 보완하였음.
- ③ 국어 및 국어사전 전문가: 국어 및 국어사전 전문가 2명에게 미시 구조에 제시된 내용 중 국어 표현 면에서의 적절성, 사전 정보로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를 받고 오류 사항을 보완하였음.

□ 차 례 □

1. 정비 사업 개요	1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1.1.1. 정비 목적	1
1.1.2. 정비 필요성	2
1.2. 정비 범위	4
1.3. 정비 방법	5
2. 정비 대상 용어 선정 및 정비 지침	7
2.1. 용어 선정	7
2.1.1. 정비 대상 용어집의 실태	7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18
2.2.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20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27
3.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정비 지침 보완	27
3.2. 용어 배분	28
3.3. 용어 집필	32
3.4. 용어 검토 및 보완	41
3.5. 감수 및 보완	48
3.5.1. 전문 분야 전문가	48
3.5.2. 원어 관련 전문가	51
3.5.3. 국어 및 사전 전문가	51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53
4.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53
4.2. 표제어 및 원어 정비	56
4.3. 전문 분야 분류	61
4.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63
4.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71
4.6. 관련 용어 구축	72
5. 결론	77

표 차례

<표 1> 정비 대상 기구축 자료의 정보 제시 실태	7
<표 2>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 및 형식	17
<표 3>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19
<표 4> 과업 수행 용어 최종 배분	32
<표 5> 전문 분야 및 분과별 감수 관련 정보	48
<표 6> 원어 관련 감수 정보	51
<표 7> 국어 및 사전 관련 감수 정보	52
<표 8> 정비 완료 분야별 표제어 항목 수	53
<표 9> 정비 완료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결과	54
<표 10> 표제어의 원어 처리	57
<표 11> “~A. 또는 B.”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64

그림 차례

[그림 1] 분야별 용어 정비 보조 연구원 작업 배분표	28
[그림 2]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분과원 등록하여 역할 설정하기	29
[그림 3]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집필자 활동 분과 확인하기	30
[그림 4] 용어 구축 시스템의 집필자 작업창	30
[그림 5] 분야별 용어 정비 공동 연구원 작업 배분표	31
[그림 6] 공동 연구원 - 보조 연구원 분야별 인력 구성표	47
[그림 7]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메모 기능을 활용한 감수 활동 화면	50
[그림 8] 감수 내용 확인 팝업창	50

1. 정비 사업 개요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1.1. 정비 목적

이 연구는 그간 각 분야별로,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산발적으로 만들어 집적하였거나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산재해 있는 용어 자료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 모아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 결과를 언중들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용어의 효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서 이번 연구에서 정비할 대상이 되는 용어는 교통 관련 용어의 성격을 지니는 『항공 사고 용어』, 『항공 용어 사전』, 『철도 용어 사전』, 『항만 용어 사전』에 실린 21,326개이다. 이 용어들을 대상으로 ① 원어, ② 정의문, ③ 분야 분류, ④ 사용 예시(용례), ⑤ 관련 용어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갖추도록 하고, 철도와 항공 분야 전문가, 표기·표현 및 사전 전문가, 원어 전문가와 협업을 하여 정확하고 적절하면서도 일반 언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하도록 한다.

정비 작업은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하며, 정비 작업의 결과로 표제어,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 관련 용어 모두에 걸쳐서 정비 지침에 따라 정확히 표기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를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고 적절히 갖춘 용어를 10,000개 이상 산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용어 정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언중들은 균질한 상태의 용어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기술하고 유통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와 이용에서 겪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로 무엇보다도 용어가 공적 언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본연의 기능인 소통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1.1.2. 정비 필요성

이번에 수행하는 용어 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공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전문 분야의 용어를 다듬어 언중의 이해 및 사용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사회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통신망에서 온갖 내용과 정보들이 널리 공유되는 소통의 시대이자 지식의 시대이다. 그런데 이처럼 통신망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주제와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된 성격을 지닌다. 이에 언중이 접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용어의 사용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처럼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상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그런 점에서 여러 세계를 알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언중들에게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번 정비 대상이 되는 항공, 철도, 항만 관련 용어는 교통 관련 용어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활발한 교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접할 기회가 많은 것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통 관련 용어의 정비는 현실적으로 적절성이 있으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발달한 교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교통의 발전과 진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교통 관련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앞으로의 용어 사용 상황에 적응하고, 용어를 적절하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교통 관련 용어들에 관한 이해가 우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번 정비 과업의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용어 사용 분야를 매개로 하여 전문어와 일반어를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언어의 공공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교통 관련 용어 중에는 전문어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전문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언중들 다수가 같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공공 용어로 쓰이게 된 경우가 무척 많아지게 되었다. 즉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전문어의 일반어화가 널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어와 전문어를 용어 사용 분야를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보 및 지식의 이해와 생산이란 면에서 모두 중요성을 지닌다.

용어란 전문적인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또는 어휘에 준하는 언어 형식으로 이해되는데 이에는 일반어와 전문 용어가 모두 포함된다. 이 중 전문 용어는 일반어와 비교할 때 언중의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이처럼 용어로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관한 이해와 사용에 전문 분야 종사자, 국어 분야 종사자 등이 손을 맞잡고 언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용어 정비를 하고, 언중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언중들이 언어 현실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용어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과업처럼 언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전문 용어적인 성격을 갖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 및 보완을 함으로써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어 언중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겪지 않고 전문 분야적 지식이 담긴 표현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에 용어가 효과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말이 소통의 도구로서 제구실을 하는 데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통의 도구로서 우리말이 제구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전문적인 정보가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넘나들고 있고 이와 관련되는 지식이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겠다.

1.2. 정비 범위

위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진에서 수행할 과업의 연구 범위와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여 볼 수 있다.

(1) 공공데이터포털 내 용어 자료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교통 관련 용어 정비

- ① 『항공 사고 용어』(28개 용어), 『항공 용어 사전』(8,442개 용어), 『철도 용어 사전』(10,631개 용어), 『항만 용어 사전』(2,225개 용어)에 실린 용어를 대상으로 정비 수행
- ②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최종 1만 개 용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정비 대상 용어를 1만 개 이상 선정한 후 정비하고 보완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제출

(2) 용어 관련 필수 항목의 일관성 및 균질화를 지향한 정비 및 보완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 및 보완 실시
- ②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 관련 용어의 수정 및 누락 정보 추가
- ③ 기구축 항목의 표기 표현, 내용의 검토 및 보완
- ④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 영어·한자어 등 원어 전문가, 국어·국어사전 전문가에 의한 검토 및 보완

(3)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용어의 정비

- ①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단계별 정비 실시 및 정비 작업의 안정적 관리
- ②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 관련 용어의 정확성 및 적절성 집중 검토 보완
- ③ 각 부문 과업 참여자들의 검토와 집필의 교차 실시를 통한 정비 및 보완

(4)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수 실시 및 결과 반영

- ① 전문 분야 내용 전문가에 의한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의 검토와 수록 정보의 적절성 및 정확성 확인
- ② 영어 및 한자어(일본어) 전문가에 의한 원어 정보 표기(띄어쓰기, 사용 문자의 종류, 대소문자의 표시, 자형) 등의 정확성 확인
- ③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 의한 정비 결과물의 적절성 및 균질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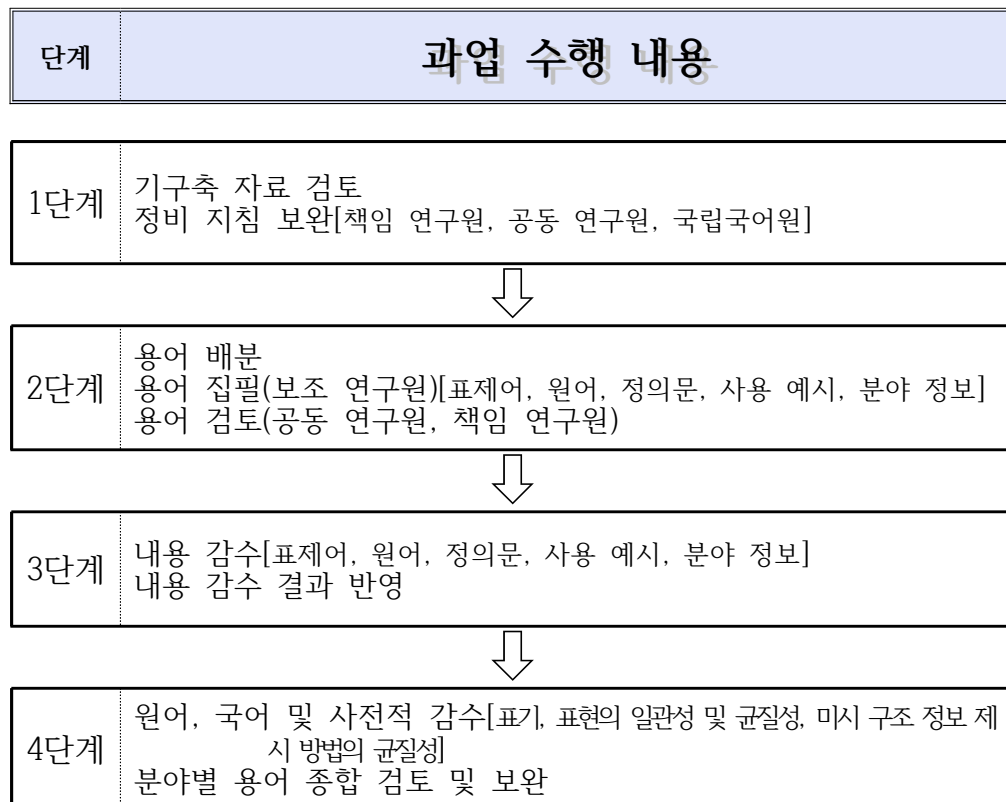
④ 전문가의 검토 결과 및 조언의 취지를 반영하여 연구진 내에서 적절히 수정

(5) 용어의 성격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 여부 판단

- ① 언중이 폭넓게 공유하는 용어의 성격에 맞게 대중성을 갖도록 정비 및 보완
- ② 공공 언어,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용어 난이도의 적정성 판단
- ③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공적인 성격을 갖는 용어의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및 보완

1.3. 정비 방법

분야별 용어 정비를 위한 작업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모든 단계의 작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수한다.



공공데이터포털 내 기구축 용어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정비 대상 범위에 있는 용어집에서 정비 대상 후보가 되는 용어를 선별한 후 정비를 수

행한다. 정비 작업은 용어 관련 필수 항목의 일관성 및 균질화를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표제어, 원어, 분야 정보, 정의문, 사용 예시의 수정과 누락 정보를 추가하고 기구축 항목의 내용, 표기 표현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2. 정비 대상 용어 선정 및 정비 지침

2.1. 용어 선정

2.1.1. 정비 대상 용어집의 실태

국립국어원에서 정비 대상으로 제시한 기구축 용어는 네 가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총 21,326개 용어이다. 이 용어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구성 항목 및 정보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표 1> 정비 대상 기구축 자료의 정보 제시 실태

자료명	표제어 표기	원어 정보 (한자 등)	정의문	사용 예시
항공 사고 용어 (28개)	한글/일부 로마자	미제시	·전체 제시 ·문장 ·대부분 언어적 정의 ·부분적으로 백과사전식 정의 포함 ·언어적 정의와 백과사전식 부연 설명이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된 경우가 있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미제시
항공 용어 사전 (8,442개)	한글/일부 로마자/아라비아 숫자	극히 소량 제시/로마자 표기 외래어 일부는 영문 용어로 판단 가능	·전체 제시 ·단어/문장 ·표제어와 정의문이 같은 것이 많음 ·백과사전식 정의 ·정의문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음 ·용어의 품사와 정의문의 형식이 맞지 않음 ·부분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한자, 영어(영어 약어)로 표시	미제시
철도 용어 사전 (10,631개)	한글/일부 로마자/아라비아 숫자	제시/로마자 표기 외래어는 영문 용어로 판단 가능	·전체 제시 ·단어/문장 ·언어적 정의와 백과사전식 부연 설명이 주를 이룸 ·영어로 된 표제어의 경우 단어나 구로 정의한 경우가 많음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한자, 영어(영어 약어)로 표시	미제시
항만 용어 사전 (2,225개)	한글/일부 로마자/아라비아 숫자	대체로 제시/로마자 표기 외래어는	·대부분 제시 ·정의문 없이 동의어만 제시된 경우가 있음 ·문장 ·언어적 정의와 백과사전식 부연 설명이 주	미제시

		영문 용어로 판단 가능	를 이름 ·하나의 용어에 정의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경 우에 용어 분리 및 기구축 정의문 수정 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한자, 영어(영어 약어)로 표시	
--	--	-----------------	---	--

위 <표 1>에서 보이는 정비 대상 기구축 자료의 양상을 분석하면 자료에 따라서 제시된 정보가 균질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각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정비 대상 용어집을 상호 비교하여 부족한 점과 과도한 점을 분석하여 용어 정비의 전체적인 방향을 세우면 아래와 같다.

① 표제어 및 원어

①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표기: 한글 표기로 바꾸고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는 원어 또는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예 1) H형^강 → 에이치형^강

예 2) 차상^ATC^rack → 차상^에이티시^랙

※ 원어: 車上ATC(Automatic Train Control) rack

※ 검색용 이형태: 차상 ATC 랙, 차상 에이티씨 랙

예 3) 수정^CBR → 수정^씨비알

※ 원어: 修正CBR(California Bearing Ratio)

※ 검색용 이형태: 수정CBR, 수정 씨비아르, 수정 씨비알, 수정 씨비아르

예 4) 2차 실속 → 이차^실속

※ 원어: 二次失速

※ 검색용 이형태: 2차^실속

예 5) 제1의^자유 → 제일의^자유

※ 원어: 第一之自由

※ 검색용 이형태: 제1의^자유

②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가. 전문어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구와 같이 단일어보다 큰 단위일 경우의 띄어쓰기는 어문 규정에 따르며, 구의 경우 단어 사이에 ‘^’을 넣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쓸 수 있음을 표시한다.

예 1) 블리딩 량 → 블리딩양

예 2) 선로이용율 → 선로^이용률

예 3) 임항창고 → 임항^창고

나.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는 한자어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두음 법칙 및 속음 등과 관련해 한자 및 한자음 표기가 맞춤법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외래어 표기법: 정비 대상 용어 가운데에는 외래어로 간주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바 이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절히 표기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가운데에는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용어의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용어의 규범 표기가 정해진 경우 규범 표기를 대상 용어로 삼고, 비규범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예 1) 판토그래프[pantograph] → 원자료에 ‘판토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으나 ‘팬터그래프’가 규범 표기이므로 용어를 ‘팬터그래프’로 수정하고 검색용 이형태로 ‘판토그래프’를 제시한다.

예 2) 영업킬로[營業kilo] → 원자료에 ‘영업킬로’로 제시되어 있으나 ‘영업 킬로’가 규범 표기이므로 용어를 ‘영업^킬로’로 수정하고 검색용 이형태로 ‘영업 킬로’를 제시한다.

예 3) 프루드 수[Froude 數] → 이 용어는 규범 표기가 아직 미확정이므로 지침에 따르면 대상 용어를 ‘프루드^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각종 사전 등에 ‘프루드 수’로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프루드 수’로 많이 유통되며,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프루드 수’의 사용 예시만 검색이 된다. 그러므로 ‘프루드^수’로 표기하고, 검색용 이형태로 ‘프루드 수’를 제시한다.

예 4) 차상ATC랙[車上 ATC(Automatic Train Control) rack] → 원자료의 용어에 로마자가 노출된 경우가 있으면 이를 한글 표기로 바꾼다. 따라서 용어를 ‘차상^에이티씨^랙’으로 수정하고, ‘차상 ATC 랙’은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C’를 ‘시’가 아닌 ‘씨’로 적는 관습을 반영하여 ‘차상 에이티씨 랙’도 검색용 이형태로 추가 제시한다.

④ 한자 표기: 한자의 경우 정자(正字)와 약자(略字)가 모두 유통되는 경우 정자를 제시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복수의 자형을 지닌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실린 정보를 참고하여 가장 먼저 제시된 자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 1) ‘암석’, ‘암석^조직’, ‘암석^구조’, ‘암석^돌출’, ‘암석^분류학’, ‘편암’, ‘유문암’, ‘착암공’, ‘초염기성암’ 등의 ‘암’: 岩 → 巖

예 2) ‘사방’, ‘사질토’, ‘경사암’, ‘사태’, ‘사암’, ‘사갱’, ‘급사^설비’, ‘사태^방

지', '살사^장치' 등의 '사': 砂 → 沙

예 3) '중요^장애물', '통신^장애', '항공^장애등', '비행장^장애도', '장애^구간'
등의 '애': 碍 → 礙

예 4) '지하철', '철도', '철탑', '철근비', '철관^조정기', '전철화', '적철석', '연
철' 등의 '철': 鉄 → 鐵

② 정의문

- ① 기구축된 정의문이 없는 경우 정의문은 2어절 이상으로 마련한다. 이때 정의항을 기본으로 하되, 부가 정보 등을 담은 설명항을 덧붙일 수 있다. 새로운 정의문은 공신력 있는 용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두루 참고하여 작성한다.

예) 심플카티너리식: 정의문 없음.<철도>

→ 수정: 정의문의 형식에 따라 용어가 갖춘 개념을 담은 정의문을 작성하여 제시

심플^카테너리식: 궤도 상부에 한 조의 가공 접촉 전선을 설치하고 전기차는 차량의 상부에 설치된 집전장치로 집전을 하고 주행 레일을 귀로로 하여 전력을 변전소로 돌려보내도록 한 조가 방식.

- ② 기구축된 자료의 정의문이 단어 또는 구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 단어 또는 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정의를 내린다.

예) 장애원인: 사고원인<철도>

→ 수정: 정의문의 형식에 맞는 종차와 유개념을 갖춘 정의문으로 대체

장애^원인: 철도 설비, 운행 등이 원만하게 작동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 원인.

- ③ 기구축 자료에 백과사전적 정보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제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언어적 정의를 먼저 내린다. 그런 다음에 백과사전적 정보를 뒤에 부연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 만국우편연합: 국제간의 우편업무의 운영에 있어서의 국제기구로 1874년 10월에 결성 사무국은 스위스의 Bern에 있다.

→ 수정

만국^우편^연합: 국제간 우편 업무 운영에 관한 국제 연합 전문 기구. 1874년에 스위스의 베른(Bern)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우편 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에 기초를 두고 1875년에 창설한 국제기관이다.

- ④ 다의어로 제시된 기구축 정의문은 정의문별로 별도의 표제어로 번호를 매겨 분리하여 집필한다.

예) 감쇠: ① 파동이나 입자가 매질이나 물질을 통과할 때 일부가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에너지 또는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 감쇠의 원인에 따라 쿨롱 감쇠 또는 마찰 감쇠, 점성 감쇠, 유체 감쇠, 구조 감쇠 등으로 나눔. ② 외부의 작용 없이 스스로 에너지나 물질의 양이 감소하는 현상

→ 수정: 하나의 정의문은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하므로 새로운 ‘감쇠’ 용어를 집필한다.

감쇠: 파동이나 입자가 매질이나 물질을 통과할 때 일부가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에너지 또는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 감쇠의 원인에 따라 쿨롱 감쇠 또는 마찰 감쇠, 점성 감쇠, 유체 감쇠, 구조 감쇠 등으로 나뉜다.(용어 번호: 220300043)

감쇠: 외부의 작용 없이 스스로 에너지나 물질의 양이 감소하는 현상. 파랑의 쇄파 및 마찰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 속도 분산 혹은 방사선의 감소 등이 있다.(용어 번호: 220417091)

⑤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을 작성한다.

예) 비행기록장치: 사고 또는 준사고조사를 보완할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한 기록장치를 말하며,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Flight Data Recorde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Cockpit Voice Recorder)가 있다.

→ 수정

비행^기록^장치: 비행 상태 고도, 대기 속도, 기수 방위, 수직 가속도, 시간 등을 기록하는 장치.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DFDR)는 기체 자세, 조종석의 작동 상태, 엔진의 추력 상황, 무선의 교신 상황 등 수백 종류의 데이터가 자기테이프에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다.

⑥ 표제어 또는 표제어 구성 요소가 동일한 형태가 가능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예) 송수신기: 송수신기를 위한 모든 회로가 같은 케이스에 내장된 무선 통신 장비.

→ 수정

송수신기: 송신기와 수신기를 위한 모든 회로가 한 상자에 담긴 무선 통신 장비.

⑦ 정의문을 끝맺을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 기술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예) 안전위해요소: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 사안, 혹은 환경

→ 수정

안전^위해^요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 사안 혹은 환경.

⑧ 띄어쓰기 등 맞춤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예) aborted takeoff 이륙중단: 이륙이 계속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조기에 종료되는 이륙.

→ 수정

이륙^중단: 이륙이 계속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조기에 종료되는 이륙.

⑨ 정의문 안에 쓰인 한자어, 외래어 등을 한글로 표기했을 때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 정보를 병기한다.

예 1) 시계^비행^상태: 시정(視程)과 구름의 상태를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가 양호한 기상 상태.

예 2) 트랜스폰더: 인터로게이터(interrogator) 또는 질문기에서 받은 신호에 대하여 응답하는 장치. 디엠이(DME) 항공기에 탑재된 인터로게이터에서 질문 신호를 보내면 지상의 디엠이 트랜스폰더는 그에 대한 응답 신호를 보내는데, 이를 통해 항공기와 지상 디엠이 국 간의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⑩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의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용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이나 『우리말샘』 등을 두루 참고하여 작성한 후 내용 분야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정확성 및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한다. 이때 표절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총온도: 유체의 흐름이 정지된 지점의 온도. 유체의 흐름이 정지되어 운동 에너지가 등엔트로피 압축에 의해 유동 상태에서 정체 온도로 바뀌었을 때 정체점에서 측정한 온도이다.(출처: 우리말샘)

3 분야 정보

① 정비 대상이 되는 모든 용어는 원자료에 구축되어 있는 정의문의 내용과 유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표시하도록 하며, 내용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정확한 분류를 도모한다.

② 정의문의 내용만으로 분야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 대역어, 사용 예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가며 판단한다.

※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서 ‘항만’, ‘철도’, ‘항공’, ‘항공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다.

‘항만’ 관련	
대분류	중분류
ND 지구과학 (지구/대기/해양/천문)	ND02 지구물리학 ND05 기상과학 ND07 자연재해분석/예측 ND08 해양과학
EI01 건설/교통	EI03 시설물설계/해석기술 EI08 해양안전/교통기술 EI09 수공시스템기술
EA 기계	EA10 조선/해양시스템

‘철도’ 관련	
대분류	중분류
EA 기계	EA03 요소부품 EA09 자동차/철도차량 EA14 재난안전장비
EI 건설/교통	EI03 시설물설계/해석기술 EI06 철도교통기술

‘항공’ 관련	
대분류	중분류
ND 지구과학 (지구/대기/해양/천문)	ND04 대기과학 ND05 기상과학 D06 기후학 ND13 우주과학
EA 기계	EA03 요소부품 EA11 항공시스템 EA12 우주발사체 EA13 인공위성 EA14 재난안전장비 EA15 국방플랫폼
EI 건설/교통	EI07 항공교통기술
SA 법	SA07 분야별전문법

‘항공 사고’ 관련	
대분류	중분류
EA 기계	EA14 재난안전장비
EI 정보/통신	EE13 재난정보관리
SA 법	SA07 분야별전문법

※『우리말샘』에서 ‘항공’, ‘항공 사고’, ‘항만’, ‘철도’ 관련 용어는 아래의 분류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우리말샘』사전의 분야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자연	지구 지리 해양 천문
공학	건설 교통 기계 전기·전자 재료 정보·통신 공학 일반

- ③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만으로 용어의 전문 분야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 작업에서는 소분류까지를 검토하여 가장 최선의 전문 분야를 판단한다.

예)

대상 용어	정의문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참고)
신호 ^{현시} 방식	운전 상황별, 분기기 제한 속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신호 현시 체계.	EI 건설	EI06 철도교통기술	EI0604 철도신호통신기술

- ④ 같은 형태의 표제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표제어만 보고 분야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 용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분야를 판단하고, 이때 관련어와 계열어의 분야를 충분히 참고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예 1) 무선^{통신}기반^{열차}제어: ‘철도’ 용어로 수록된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는 고정 폐색 방식을 무선 통신을 이용한 이동 폐색 방식으로 개량하여 운전 시격 단축, 유지보수 비용 절감, 운영 유연성 증대, 수송용량 증대를 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뜻한다. 이 용어의 의미를 보면 대분류[EA 기계], 중분류[EA09 자동차/철도차량] 혹은 대분류[EI 건설/교통], 중분류[EI06 철도교통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감수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이를 위하여 감수위원의 검토가 필요한 바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내용을 남긴다.

예 2) 브라운관: ‘항공’ 용어로 수록된 ‘브라운관’은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또는 약어로 CRT라고도 하며, 진공관 내부의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군을 계극면에 충돌시키면 빛이 발산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광학적인 영상 신호로 바꾸어주는 전자관을 뜻한다. TV, 오실로스코프, 레이더 스크로프 등 다양한 기계에 사용되는 요소 부품이기 때문에 대분류[ED 전기/전자], 중분류[ED10 디스플레이]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화면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대분류[ED 전기/전자], 중분류[ED08 영상/음향 기기]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전기 신호를 영상 신호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대분류[EE 정보/통신], 중분류[EE11 정보통신모듈/부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감수위원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용어 구축 시스템에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내용을 남긴다.

- ⑤ 표제어가 이번 정비 대상 분야인 ‘항공’, ‘항공 사고’, ‘항만’, ‘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분야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를 검토한다.

예 1) 학술원, 학원: ‘항공’ 용어로 수록된 ‘학술원, 학원’은 항공과 관련된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관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구과학, 기계, 건설/교통, 법 등의 대분류보다는 대분류[OX 인력 및 인프라], 중분류[OX01 인력양성], 소분류[OX0102 대학(교육) 및 전문인적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예 2) 치명적 부상: ‘항공 사고’ 용어로 수록된 ‘치명적 부상’은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3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부상을 뜻한다. 위에 제시한 항공 사고 관련 분류에 포함되기보다는 대분류[LC 보건의료], 중분류[LC02 임상의학], 소분류[LC0221 응급의학]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⑥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전문 분야 분류 지침』(V3.2.)의 분야 분류 기본 원칙 및 세부 원칙을 이해하고 『2018년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연구 분야 해설서』 참고하여 분야 분류 체계 정보를 이해하고 분야 분류 판단 시 참고한다.

예) 향안풍: ‘항만’ 용어로 수록된 ‘향안풍’은 해안에서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뜻한다. 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분류명만으로 판단하면 대분류[ND 지구과학]의 중분류[ND05 기상과학] 혹은 [ND08 해양과학]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설서의 설명을 참고하면 쉽게 중분류[ND05 기상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기상과학: 강수, 바람, 구름 등과 같은 대기 현상을 다루는 다학제적인 과학 분야로서, 날씨를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들과 기상현상이 농업, 보건, 산업, 항공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응용성을 연구하는 세부 분야를 포함.

→ 해양과학: 해양의 물리·화학·생물 및 지질학적 요소들과 이들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

4 사용 예시

① 사용 예시는 정비 대상 용어의 실제 의미와 분야 분류 정보와 관련을 지어 대표적인 해당 용어의 의미, 용법, 품사 정보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서 제시한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 어휘의 사용 예시를 최대한 정확한 문맥에서 사용한 예시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 예시 구축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인다.

가. 사용 예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 예시 검색 시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 (1) 관련 부처 발간 자료(각종 자료집, 보도 자료, 공문)
- (2) 관련 분야 논문 자료
- (3) 신문, 뉴스 자료(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종합 검색)
- (4) 말뭉치 자료(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여러 말뭉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현대 한국어 용례 검색 등)
- (5) 전문용어사전(정부24 행정전문용어사전,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등)

나. 위 (가 1), (가 2)의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검색 도구(프로그램)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여러 PDF 파일의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

- (1) PDF-Xchange Viewer
- (2) Acrobat Reader
- (3) SeekFast
- (4) Foxit Reader
- (5) UltraFinder

다. 사용 예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균질성의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용 예시를 구축한다.

- (1) 용어의 정의, 용도,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사용 예시는 기본적으로는 문장 단위로 제시한다. 단, 문장으로 된 사용 예시 확보가 되지 않고 구 단위 사용 예시만이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국립국어원과 협의된 바에 따라 구 단위 사용 예시를 제시한다.
- (3) 사용 예시 입력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ㄱ. 사용 예시는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한다.

ㄴ.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O (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으로 처리한다.

ㄷ.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입력한다. 자료별 작성 순서 및 형식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 및 형식

종류	작성 순서 및 형식	예시	
보도자료	기관명 보도자료, 날짜, 제목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 1. 29., 과기정통부, 「2020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누리집	누리집명, 대항목>항목	누리집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현황) 예방 요령
금융약관	기관명/회사명, 자료명, 쪽수	약관 ▼	DB손해보험, 참좋은행복다들플러스종합보험 2104, 00쪽
전시 해설서	기관명, 제목, 쪽수	전시해설서 ▼	국립한글박물관, 친구들아, 잘 있었니?, 0쪽
기사	신문명, 날짜, 제목	기사 ▼	연합뉴스, 2020. 8. 7., 전남도 '태풍 비비 시설, 농작물 피해 예상보다 적어'
법령	법령명(법령 번호) 조항	법령 ▼	가상법 시행령(대통령령1747호) 제10조제2항제15호
기타	(기관명), 책 제목, 쪽수	기타 ▼	교육부, 2019 교육정보화백서, 12쪽
기타 (논문)	(기관명/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기타 ▼	추효상, 2019, '여자만 서수도 해역의 조류 및 조석평균류 특성', 수산해양기술연구 55, 259쪽
기타 (특허)	등록 특허명(등록 특허 번호), 쪽수	기타 ▼	나노 크기의 감지 센서(등록특허 10-0808421), 5쪽

③ 사용 예시에서 표제어에 해당하는 용어는 진하게 표시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용어 부분을 정확히 블록으로 지정한 후 <진하게>를 눌러 굵게 표시되도록 한다. 블록이 정확히 지정되었는지는 집필 원고를 검토하여 '용어'과 같이 태그가 잘못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정확히 붙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한다.

5 관련 용어 정보

- ① 관련 용어 정보는 용어의 형태, 의미, 품사, 분야 분류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와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용어를 찾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② 분야 분류의 결과가 같지 않거나 분야 분류 체계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를 따

르지 않는 것은 서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용어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③ 일치어로는 용어의 표기, 분야 분류, 의미가 같은 것만을 연결하고, 어느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는다.

④ 관련 용어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검색을 통하여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가 있을 경우에 관련 용어 정보를 제시한다.

ㄱ.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ㄴ. 기구축 용어 자료집 중 「용어 구축 시스템」에 등재되어 검색이 되는 것

⑤ 관련 용어를 보완할 때에는 기존에 관련 용어가 제시된 경우여도 표제어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 용어 사전』에 수록된 관련 용어 가운데 아래와 같이 표제어와 관련 용어가 잘못 연결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 표제어와 관련 용어가 잘못 연결된 경우

예 1) 간척지 - 저조(동의어)/만조(반의어) → 간조 - 저조(동의어)/만조(반의어)

예 2) 간조 - 저조선(동의어) → 간조선 - 저조선(동의어)

나. 관련 용어가 누락된 경우

예 1) 갠트리 트레인 - 컨테이너 크레인(동의어)

→ 갠트리 트레인 - 컨테이너 크레인, 안벽 크레인(동의어)

예 2) 계류 선박 → 계류 선박 - 운항 선박(반의어)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기구축 자료집을 보면 하나의 단어나 이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된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공 용어 사전』에 실려 있는 ‘날개에 깔아 놓은 판’, ‘상층 기온과 바람 예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번씩 반복하라’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표제어에는 구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 있고 문장의 성격을 지닌 것도 있다. 용어가 구로 구성이 된 경우 각 단어가 지닌 의미의 연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각 단어에 관한 이해만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비행 시 무전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그것 자체로 특정 상황에 쓰이는 것으로 이해되어 일반적인 문장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HIWAS broadcast area’, ‘I say again’, ‘If no transmission received for (time)’과 같이 영어 또는 영어 문장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항공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항공 용어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용어로서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구축 자료집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하였다.

『항공 용어 사전』, 『항만 용어 사전』, 『철도 용어 사전』에는 건설 일반에 사용되는 용어가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어 중 특정 영역의 전문 분야를 판정할 수 없는 것들은 이번 과업의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기구축 자료집을 살피고 우리의 삶 및 생활 환경과 관련도가 높은 것,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선별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용어 정보가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적인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비 대상 용어로 최초 선정한 것은 12,000개였다.

<표 3>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기구축 용어집명(수록 용어 개수)	→	정비 대상 용어 개수
①	『항만 용어 사전』(2,225개)	→	1,254개
②	『항공 사고 용어 사전』(28개)	→	25개
③	『항공 용어 사전』(8,442개)	→	4,739개
④	『철도 용어 사전』(10,631개)	→	5,982개
	누계		12,000개

2.2.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연구진에서는 용어 정비 작업의 지침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활용하였다. 이 지침은 ‘기본 지침’과 ‘항목별 세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지침’은 이 정비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항목별 세부 지침’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내용이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침을 따르되, 이 지침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연구진에서는 연구진 내부의 논의 및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해 준 지침과 함께 사용하며 용어 정비를 하였다.

연구진에서 만든 지침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용어 정비 시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우리말샘』에 수록된 정보들을 어떻게 참고하고 이와 연계하여 어떻게 일관성을 기하면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진에서 마련한 세부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용어 등록

1. 띄어쓰기: 형태의 어휘에 대한 띄어쓰기가 원자료집과 『우리말샘』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를 따른다. 『우리말샘』에 등재된 말이 아니라면 원자료집에 따르되, 원자료집에 구로 제시된 경우에는 ^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예) 『항만 용어 사전』에는 ‘저서 생물’과 같이 띄어쓰기가 된 채로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으나 『우리말샘』에는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등록된 경우, 『우리말샘』에 따라 집필함. 즉 ‘저서생물’과 같이 처리함.
2. 『우리말샘』에서 복합어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우리말샘에 ‘중중모리-장단’과 같이 ‘-’으로 직접 구성 요소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표시하지 않는다.
3. 외래어 띄어쓰기: 『우리말샘』에 없는 외래 용어인 경우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이때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 기호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4. 외래어 표기

① 용어의 규범 표기가 『우리말샘』이나 미확정이고 국립국어원 누리집 속의 외래어 용례 찾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원자료집에 제시된 표기가 유일한 경우 원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는 표기 형태로 입력한다.

② 원자료집에 미확정 표기가 여럿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규범 표기에 가까운 것을 입력하고 나머지 것은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③ 외래어 표기법의 규범성 판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가장 우선하고 이에 이어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따라서 이 둘의 표기법이 다를 때에는 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따른다.

예) 『항공 용어 사전』의 ‘스콱’은 발음이 [skwɔ:k]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르면 ‘스콱’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 용례 찾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외래어 표기법 기본 원칙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스콱’이 관용 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스콱’을 미확정 표기로 보고 원자료에 있는 형태 그대로 입력한다.

5. 한자 정보가 『우리말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잘못된 것이 맞다면 수정한다.

6. 동일한 표제어를 발견할 경우, 해당 표제어의 정의를 확인 후 다르게 쓰이면 용어1, 용어2와 같이 어깨번호를 달고 동형어 처리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 이들이 한 용어를 분리한 것임을 드러내도록 한다. 그러나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일관된 처리를 위하여 최종 결과물에는 어깨번호를 삭제하고서 국어원에 제출한다.

7. 동일한 표제어가 정의문도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골라 분과 반려 요청을 한다.

8. 원자료에 동의어 두 개가 하나의 대상 용어로 나열된 경우 분리하여 각각의 대상 용어로 집필하고, 동의어로 연결한다.

② 분야 분류

1. 분야 분류 작업은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해설서’와 ‘전문 분야 분류 지침’을 토대로 실시한다.

2. 분야 분류는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만을 표시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 이외의 분야 분류(정부 기능 분류 체계, 우리말샘 전문 분야)는 새로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집필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말샘 전문 분야’ 등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3. 집필 대상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를 할 때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에 실린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분류를 잘 참고하여 비슷하게 분야 분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

③ 정의문 작성 및 제시

1. 정의문 작성 시 원자료집에 제시된 것이 아닌 다른 용어 사전들을 이용하더라도 참고한 사전과 6어절 이상 같아서는 안 된다. 이처럼 다른 전문 사전을 참고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을 참고하고 이용하는 경우는 정의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출처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을 선택한다.
2. 원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용어의 개념 이해에 불필요해 보이는 것은 덜어 내도록 한다. 사전의 정의문이 제시되는 틀에 맞추어 용어의 핵심 내용이 잘 표현되고, 유개념과 종차가 잘 드러나도록 정의문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3.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이 끝나도록 작성한다. 만일 부가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문은 “~다.”와 같이 온전한 서술문으로 끝내도록 한다.
4. 여러 문장으로 정의문을 제시할 경우에 사전적 정의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에 표제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정의문에는 표제어 또는 표제어의 구성 요소가 가능한 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정의문은 반드시 어문 규범에 맞게 표준어를 쓰고 띄어쓰기를 옳게 하여 작성한다.
6. 정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다.
7. 하나의 정의문은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작성한다. 이에 따라 어떤 표제어가 여러 개념을 지니는 다의어인 경우에는 개념별로 용어를 추가하여 집필하여 개념의 개수만큼 용어가 집필되도록 한다. 원자료의 정의문이 ①, ② 등의 번호로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으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정의문이 변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면 하나는 삭제하도록 한다. 의미가 확실하게 변별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개의 용어로 분리하여 집필하되 두 의미가 실재함을 보이는 사용 예시를 찾아 넣도록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용 예시에서 볼 수 있는 의미에 해당하는 용어만을 집필하도록 한다.

8. 정의문 출처가 원자료인 경우 출처에 ‘기타’를 선택하고 원자료명을 쓴다. 원자료명은 용어집 이름에 정부 부처명을 병기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예) 철도 용어 사전(국가철도공단), 항만 용어 사전(해양수산부), 항공 사고 용어(국토교통부), 항공 용어 사전(국토교통부)

④ 사용 예시 작성 및 제시

1. 사용 예시는 원칙적으로 한 문장만 제시한다. 한 문장만 제시함에 따라 주어 나 목적어 등이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이더라도 문장의 틀을 바꾸는 등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주어 또는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는 앞 문장이나 뒤 문장을 같이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사용 예시는, 문장의 형식은 원문대로 하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다.
3. 집필 대상 용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용어가 쓰인 것은 사용 예시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 ‘외적 영향’이라는 용어(표제어)의 사용 예시로, 이 말이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외적 영향 분석’, ‘외적 영향 평가’, ‘외적 영향 요소’ 등은 이 또한 하나의 용어(표제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외적 영향은~’과 같은 경우가 사용 예시로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4. 사용 예시를 작성할 때 인명, 지명, 사명 등에 OO으로 하는 비식별 표시는 사용 예시와 출처 모두에 하고, 양쪽 모두에 일관되게 처리한다.
5. 비식별 표시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 공기업 등의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부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내용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노출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업이나 개인 등의 경우는 민감한 것이므로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사용 예시가 부정적 문맥일 경우에, 도/시/군/구, 정부 부처 등 모두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 가능하다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맥락을 지닌 예시를 제시한다.
7. 사용 예시를 찾기 어려운 것은 <집필 완료> 대신 그 상태로 두어 <집필 중>으로만 놓아둔다.
8.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에는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구 단위 사용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느 조항의 일부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9.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를 한다. 용언의 경우는 어미를 포함하여 굵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는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한다.
10. 사용 예시 검색으로 얻은 결과가 한자로 표시된 것은 한글로 바꾸어 예시를 제시한다.
11. 사용 예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책정보포털’(https://policy.nl.go.kr/)의 자료를 활용하여 예시를 확보한다.
12.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13. 정부 부처의 발간 자료 출처를 제시할 때, 발간 자료 제목을 그대로 입력한다. 발간 자료 제목에 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입력한다.
14.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논문 제목과 책 제목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시한다. 발행 연도는 앞의 저자명과 쉼표로 구분하여 띄어 쓰도록 하고 괄호에 넣어 표시하지 않는다.
예) (기관명/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 홍길동 외, 2022, ‘울도국을 그리며’, 홍길동 연구 23-1, 홍길동연구학회, 15쪽
15. 사용 예시의 출처에 신문 또는 방송 기사의 웹 주소(URL)는 표시하지 않는다.
예) 경향신문, 2022. 5. 3., 부여 왕릉원에서 돌방 구조 왕릉급 고분 추가로 찾았다,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205030955001
→ 경향신문, 2022. 5. 3., 부여 왕릉원에서 돌방 구조 왕릉급 고분 추가로 찾았다
16. 신문사, 날짜, 제목 사이는 반점(.)으로 구별하여 제시한다.
예) 경향신문, 2022. 5. 3., 부여 왕릉원에서 돌방 구조 왕릉급 고분 추가로 찾았다
17. 기사 등이 작성되거나 발간된 일자를 연월일로 표시할 때 십의 자리에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예) 2022. 09. 03. → 2022. 9. 3.
18. 사용 예시의 출처도 어문 규범에 따라서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시한다. 규범에 맞지 않게 된 기사의 제목 등은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다.
19. 마땅한 사용 예시가 없어 네이버 백과사전 등에서 예시를 찾아 제시한다면, 출처를 기타로 처리하고 사전명을 기입한다. 이때 사용 예시 출처는 기타에 ‘사전명’, ‘검색어명’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 기타> 네이버 백과사전, 의장수

20. 판결문을 사용 예시로 제시할 경우 출처를 기타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쪽수가 표시되어야 할 경우에는 맨 끝에 쪽수를 표시한다.

예) 대법원 판결문, 1987. 12. 8., 87도2088,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1. 정의문이나 사용 예시의 구 단위 전문어 띄어쓰기는 규범에 따라 띄어 쓰도록 한다. 특히 사용 예시에서 등장하는 표제어의 띄어쓰기가 표제어로 제시된 형태의 띄어쓰기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2. 사용 예시에서 단체명은 하나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다면 붙여 쓰도록 한다. 다만 검토 완료한 것들 중에 단체명을 띄어 쓴 것들은 애써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3. 한자어, 고유어(혼종어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어)의 경우는 원어 표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 측정^정도와^무게의^관계 → (한자)測定程度(고유어)와무게의(한자)關係

4. 대상 용어, 정의문, 사용 예시 등에 로마자나 한자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국어기본법」 제14조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한다.
5. 사용 예시, 정의문 등에 사용할 문장 부호 중 자판의 설정 환경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열어 이곳에 제시된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이 있다.

⑥ 일치어 판별 및 처리

1. 일치어를 추가할 때에는 형태(표기)와 의미와 분야 분류가 같아야 한다. 다만 띄어쓰기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일치어 관계의 용어들은 개념상 분류 정보도 같아야 하므로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상 대분류가 같더라도 중분류가 다르면 연결하지 않는다.
※ 다만, 여러 가지 정보를 볼 때 일치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분야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 알려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 처리한다.
2. 정의문에 관련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관련 용어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1)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 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관련 용어는 등록하지 않는다.

3. 원자료의 설명과 『우리말샘』의 설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개념이 같으면 일치어로 처리한다.

7 대역어

1. 대역어가 로마자인 경우,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 명사, 독일어의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2. 대역어에 본말과 그 약어를 함께 입력할 때 두문자어(로마자)로 된 약어는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본말 중 약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3.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정비 지침 보완

정비 작업의 가장 첫 단계는 기구축 자료를 검토하여 정비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즉 거시 구조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고르는 일과 이 표제어로 표상되는 정의, 이 의미에 걸맞은 사용 예시, 분야 분류, 관련 용어 등의 미시 구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축 용어 가운데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거나 관여도가 높은 용어를 고르고, 이렇게 고른 어휘들의 미시 구조의 구축 상황을 살펴 이번 과업의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 대상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로 앞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에서 볼 수 있듯이 4개 자료집에서 모두 12,00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정비 지침은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제공받은 정비 지침을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연구진에서 검토를 하여 논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을 추출하고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전달을 하였다. 이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정비 지침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물을 보내 온 것을 가지고서 정비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 작업을 시작하려다 보니 지침이 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미시 구조에 들어갈 내용을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제시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일이었다. 이에 연구진 내부의 협의를 거쳐서 「2.2.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자체 보완 지침을 상당히 자세하게 만들어 작업을 하는 데에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2. 용어 배분

2.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어휘 12,000개를 「용어 구축 시스템」(<https://koreanterms.korean.go.kr>)에서 보조 연구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정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용어 배분 시에는 각 분야를 하나의 과제로 설정하고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용어를 분배하여 연구원들이 비슷한 성격의 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기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에게 참여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 결과 복수의 분과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배분 원칙에 따라서 먼저 보조 연구원들에게 해당되는 [그림 1]과 같은 작업 배분 계획이 나오게 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각 과제의 ‘집필 및 검토’ 분과에 분과원으로 등록하고 작업 대상 용어를 배정하였다.

분야별 용어 정비 연구 보조원 작업 배분

	항공 사고 용어	항공 용어	철도 용어	항만 용어	총 개수
런명지에	1~25(25)	1~312(312)		1~90(90)	430
김다솔		313~1312(1000)		91~180(90)	1090
미즈카이 유카리		1313~1876(564)		181~270(90)	654
하현정		1877~2876(1000)		271~360(90)	1090
강은진		2877~3876(1000)		361~450(90)	1090
최옥정		3877~4660(784)		451~540(90)	874
김서홍		4661~4739(79)	1~485(485)	541~630(90)	654
이유미			486~1485(1000)	631~720(90)	1090
박정은			1486~2049(564)	721~810(90)	654
조하진			2050~2409(360)	811~900(90)	450
고상미			2410~3409(1000)	901~990(90)	1090
오지수			3410~4409(1000)	991~1080(90)	1090
이지성			4410~5409(1000)	1081~1170(90)	1090
전철한			5410~5982(573)	1171~1254(84)	654
배분총계	25	4739	5982	1254	12000
분야별총계	25	4739	5982	1254	12000

[그림 1] 분야별 용어 정비 보조 연구원 작업 배분표

보조 연구원이 시스템에 가입하면 배분표에 따라 과제별 작업 분과에 분과원으로 등록하였다.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는 집필자와 검토자로 역할이 나뉘므로 보조 연구원들은 분과원으로 등록한 후 집필자로 권한 설정하여 집필을 진행하였다.

분과원 관리

과제: 2022_분야별 용어 정비_철도용어사전 (국가철도공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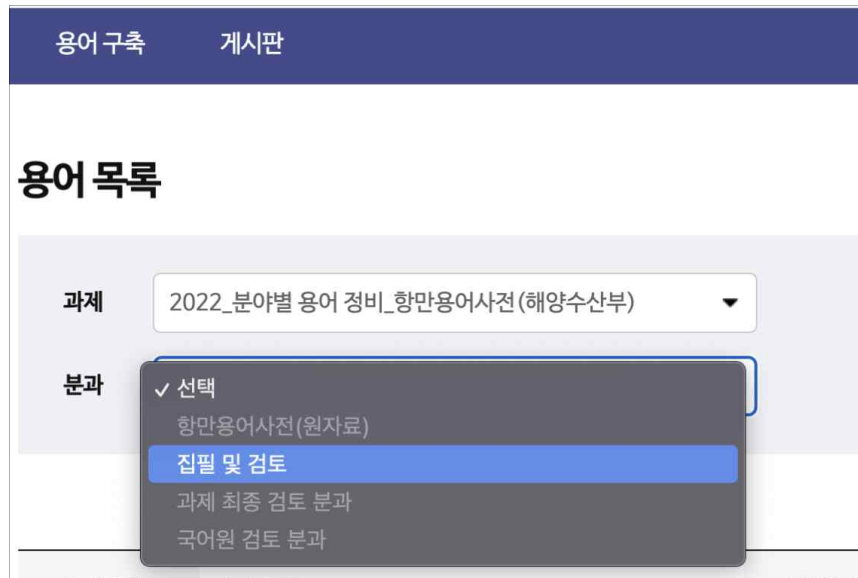
분과: 집필 및 검토 ▼

총 22건 분과원 추가

번호	이름	계정	역할	등록 날짜	삭제
22	고상미		집필자	2022. 8. 23.	삭제
21	김서홍		집필자	2022. 8. 23.	삭제
20	박정은		집필자	2022. 8. 23.	삭제
19	오지수		집필자	2022. 8. 23.	삭제
18	이지성		집필자	2022. 8. 23.	삭제
17	조하진		집필자	2022. 8. 23.	삭제
16	이유미		집필자	2022. 8. 23.	삭제
15	이준환		집필자	2023. 1. 25.	삭제
14	강은진		집필자	2022. 12. 23.	삭제
13	미즈카이유키리		집필자	2022. 12. 7.	삭제

[그림 2]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분과원 등록하여 역할 설정하기

분과에 등록한 분과원은 자신이 등록된 분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아래 [그림 3]과 같이 활성화된 분과에서 용어 정비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림 3]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집필자 활동 분과 확인하기

분야분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input type="checkbox"/> 선택	선택
	정부 기능 분류 체계 (BRM)	<input type="checkbox"/> 선택	선택
	우리말샘 전문 분야	<input type="checkbox"/> 선택	선택
용어	비행자료해독장비	중복 확인	용어 정보 가져오기 <input type="checkbox"/> 복한어
	검색용 이형태	검색용 이형태가 여러 개일 경우 콤마(,)로 구분	
원어	<input type="radio"/> 원어 없음(고유어) <input checked="" type="radio"/> 원어 입력(언어명 입력) <input type="radio"/> 원어 입력(언어명 안 밝힘)		
	고유어		+ -
어종	<input type="radio"/> 고유어 <input type="radio"/> 한자어 <input type="radio"/> 외래어 <input checked="" type="radio"/> 혼종어		
정의문	한국어	줄바꿈	특수 문자 입력기 + -
	FDR에 기록된 내용을 인출(download)하여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10진수의 숫자(engineering unit)로 변환하고, 이 자료를 그래프 방식 또는 테이블 방식으로 나타내며, 필요한 경우 특정자료만을 선택하여 해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함		
	출처	기타	항공사고용어(국토교통부)
사용 예시	예시 찾기	진하게	특수 문자 입력기 + -

[그림 4] 용어 구축 시스템의 집필자 작업창

필수 항목으로 설정된 작업창에 입력된 값이 없으면 [집필 완료]가 불가하

며 이때는 누락된 필수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 달라는 확인창이 뜬다. 필수 항목으로 설정된 [사용 예시]는 집필 단계에서 최대한 수집이 필요한 항목이며 용어의 정의와 용어 사용 분야가 적절한 사용 예시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전문어의 경우 관련 기구축 말뭉치나 빅카인즈 구축 자료에서 사용 예시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처 발간 자료(각종 자료집, 보도 자료, 공문 등), 관련 분야 논문 자료, 전문어 사전 등을 활용하여 사용 예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PDF-Xchange Viewer’ 등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야별 용어 정비 공동 연구원 작업 배분

	항공 사고 용어	항공 용어	철도 용어	항만 용어	총 개수
조재형	1~25(25)	1~1515(1515)			1540
조경순		1516~3055(1540)			1540
유하라		3056~4595(1540)			1540
이수진		4596~4739(144)	1~1076(1076)		1220
임태운			1077~2616(1540)		1540
최지영			2617~4156(1540)		1540
최윤			4157~5196(1040)	1~500(500)	1540
선한빛			5197~5982(786)	501~1254(754)	1540
배분총계	25	4739	5982	1254	12000
분야별총계	25	4739	5982	1254	12000

[그림 5] 분야별 용어 정비 공동 연구원 작업 배분표

이렇게 집필이 완료된 것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하였다. 이때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은 가능한 짝을 지어 주어, 유기적으로 집필과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과업 대상 용어는 사용 예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용 예시 미확보분을 예상하여 최종 목표 10,000개의 20%를 추가로 배분하였으나, 1차 집필이 완료된 후에도 목표치인 10,000개가 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비 대상 용어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조 연구원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추가 배분 용어는 4,086개로 총 16,086개를 정비 대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표 4> 과업 수행 용어 최종 배분

	기구축 용어집명	→	정비 대상 용어 개수
①	『항만 용어 사전』(2,225개)	→	1,268개
②	『항공 사고 용어 사전』(28개)	→	23개
③	『항공 용어 사전』(8,442개)	→	4,774개
④	『철도 용어 사전』(10,631개)	→	10,021개
	누계		16,086개

3.3. 용어 집필

용어 집필은 집필 지침에 따라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배정받은 항목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고 정확성과 적절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가며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은 물론이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용어 사전 등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이 과업의 취지에 걸맞은 용어 집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용어 집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순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사용 예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표제어: 기본적으로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 원어: 누락된 정보를 찾아 보충하고 정확성을 기한다.
- 정의문
 - ① 단어 또는 구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문장 정의로 수정 및 보완한다.
 - ② 정의문은 언어적인 정의를 나타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하나의 문장

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부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어적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에 부가 정보를 제시한다.

③ 정의문이 미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감수위원의 판단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의문을 작성한다.

- 분야: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한다.
- 사용 예시: 용어의 의미와 사용 분야에 걸맞은 문장 단위 예시를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하여 신문, 잡지, 보고서, 논문 등에서 뽑아 제시하고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 관련 용어: 용어의 형태, 의미, 전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구축된 자료에 제시된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충실히 표시한다.

이번 과업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여 사용 예시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면 사용 예시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사용 예시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아서, 연구진에서는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보고서, 계획서 등의 공개 자료, 연구 논문, 전문 자료, 특허 문서 등을 최대한 검색하여 확보하여 이곳에서 사용 예시를 추출하여 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구체적으로 『항공 교통 관제 절차』, 『항공 교통 통신 정보 업무』 및 전문 서적 등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 예시 검색 및 확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공한 자료는 용어 분야별로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먼저 항공 관련 용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항공 분야의 각종 보고서, 지침서, 소개 자료, 도록 등이 포함된 것을 제시하였다. 철도 관련 용어에서는 각종 철도 관련 특허, 연구 논문, 전문 서적,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비 용어가 포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사용 예시를 제시하기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배제하였다.

이번 정비 과업에서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주요한 전문 서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주요 전문 서적 목록

- 김동진 외(2001), 『내연기관』, 문운당.
- 박재영 외(2009), 『철도신호공학』, 동일.
- 서사범(2006), 『철도공학』, BG북갤러리.
- 서사범(2019), 『선로공학: 궤도역학, 궤도재료, 궤도의 설계와 관리, 보안·운전, 소음·진동』, BG북갤러리.
- 성홍계(2021), 『항공추진엔진 이론 및 성능 설계: 가스터빈에서 스크램제트 엔진까지: 설계/3D프린팅 제작』, 흥릉.
- 손영진 외(2013), 『신편철도차량공학: 철도차량기사, 기술사 시험대비』, 구미서관.
- 송운섭(2004), 『항공기 장비』, 크라운.
- 심종수 외(2006), 『항공기 객실구조 및 안전장비』, 기문사.
- 양병남(2019), 『(최신)전기철도공학』, 성안당.
- 양한모 외(2011), 『항공교통개론』, 한국항공대 출판부.
- 오영택 외(2004), 『내연기관공학』, 동명사.
- 이강희(2007), 『비행기 조종학』, 비행연구원.
- 이종득(2009), 『철도공학』, 노해.
- 이창식(2009), 『엔진 시스템 공학』, 양서각.
- 일본철도협회 편/원기술 편집부 역(2005), 『철도구조물설계시공』, 원기술.전기학회 역(대표 역자: 강승욱)(2013), 『철도와 EMC』, 전기학회(전기철도의 전자 환경에 관한 협동연구 위원회), 성안당.조용욱 외(2013), 『항공기 기체』, 청연.
- 조용욱 외(2013), 『항공역학』, 청연.
- 전홍신(2011),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수천명미디어.
- 홍용기(2011), 『철도차량시스템 기술』, 화남출판사.
- John D. Anderson, Jr. 저/변영환 외 역(2017), 『(Anderson) 항공우주 비행 원리』, 텍스트북스.
- Stephen R. Turns 저/노수영 외 역(2012), 『연소공학』, 한국맥그로힐.

이어서 정부 부처에서 간행한 보고서, 안내서, 지침 등도 많이 검색을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요 간행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목록들도 많이 있다.

(2)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정부 부처 주요 간행물 목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2020), 『건설 기계 운전자 안전 작업 가이드-덤프트럭-』,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2006), 『초경량 비행 장치 가이드』, 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2012), 『선로 유지 관리 지침』,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2020), 『연동 도표 작성 기준』(KR S-06030),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2013), 『항공 교통 관제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0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17), 『조종사&항공 교통 관제사 표준 교재: 항공 교통·통신·정보 업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18), 『관제사 표준 교재: 관제 일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18), 『조종사 표준 교재: 계기 비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20), 『항공 교통 관제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15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22),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0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22), 『공항·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46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2014), 『회전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2019), 「항공기 사고 조사 보고서-이륙 포기 중 활주로 초과 이탈, 미국 UPS 항공(UNITED PARCEL SERVICE), MD-11F, N277UP, 인천공항 활주로 33L, 2016. 6. 6.」(보고서 번호: ARAIB/AAR160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해양부(2012), 『도로 설계 편람(제3편 도공 및 배수, 제4편 도로 포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2006), 『비행장 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기상청(2012), 『굴절과 초동주시역산을 통한 한반도 지각 속도 구조 연구』, 기상청.

김준혁 외(2013), 『항공 교통 흐름 관리 기반의 효율적 공역 활용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사고조사위원회(2006), 『철도 운행 장애 조사보고서(지하철0호선 OO~OO

역 간 차량 고장』, 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고속 전철 구조물 안전성 기술 개발(2 단계 1 차년도 연차 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2020), 『항공정보매뉴얼』(2020년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7), 『압축 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KO SHA GUIDE G - 17 - 20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5), 『철도 시스템 Smart 기술 연구(과제 책임자: 이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12), 『폐색방식의 종류 및 기능』(KR S-05020),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2012), 『KR A-08020 검수량 및 검수선 산정 기준』, 한국도시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2013), 『연직갱 및 경사갱』(KR C-12100),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2013), 『철도 건설 공사 전문 시방서(궤도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2018), 『정비시설 일반사항』(KR A-08011), 한국철도시설공단.

항공기상청(2022), 『항공기상 서비스 사용자 안내서』, 항공기상청.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민간의 여러 연구 논문들을 검색하여 용어들의 사용 예시를 찾을 수 있었다. 사용 예시 확보에 참고한 주요 연구 논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목록들도 많이 있다.

(3)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주요하게 참고한 주요 연구 논문 목록

권혁준 외(2014), 「한국형 기동 헬기 계기 비행 인증 절차 및 비행 시험 결과」, 『한국항공우주학회지』 42-2, 한국항공우주학회.

김순관(2005), 「OD 조사 전수화 방법」, 『교통기술과정책』 2-4, 대한교통학회.

남영국(1997), 「콘크리트 포장의 기초 이론과 설계 기법」, 『콘크리트학회지』 9-5, 학회콘크리트학회.

노건수 외(2013), 「항공기 착륙 거리의 여유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17-3, 한국항행학회.

- 노범택 외(2016), 「승객 서비스 장치의 신뢰성 향상 방안 연구」, 『2016년도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 박영수 외(2006), 「중력 보정과 중력 이상에 대한 이해」, 『물리탐사』 9-2, 물리탐사학회.
- 박진욱 외(2022), 「소노부이 신호 송수신을 위한 오토 인코더 기반 신호 변복조 기법」, 『한국음향학회지』 41-4, 한국음향학회.
- 서강현(2018), 「유럽 엔지니어링사의 터널 설계 소개-알제 메트로의 터널을 중심으로-」,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 공간』 20-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 서사범(2014), 「철도 현업에서의 용어와 용어 정의의 오용 사례 및 그 개선의 제언」, 『철도저널』 17-3, 한국철도학회.
- 신성령 외(2008), 「탄성파 반사법 및 굴절법을 이용한 천해저 지반 조사에 대한 연구」, 『물리탐사』 11-2, 물리탐사학회.
- 이동근 외(2002), 「철도 시스템의 운전 계획 수립」,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 임영석 외(2006), 「재료 분포의 연속적인 근사를 이용한 위상 최적 설계 방법의 비교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권 30-2, 대한기계학회.
- 장동일 외(1996), 「실측에 의한 열차의 주행 저항에 관한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8-3, 한국강구조학회.
- 정태진 외(1993), 「공진을 통과하는 일자유도계의 과도 진동 특성」, 『한국정밀공학회지』 10-3, 한국정밀공학회.
- 주재영 외(2012), 「경전철 차량 기지 빌딩화 방안 검토」, 『한국철도학회 추계 학술 대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 최인수(2021), 「경년열화된 게이지 블록의 표면 거칠기 파라메타 분석」, 『한국기계기술학회지』 23-5, 한국기계기술학회.

용어들의 경우 법률, 시행령, 장관령 등의 법령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져 있거나 사용 예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령 등을 사용 예시를 확보하는 데에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법령의 목록도 많이 있다.

(4)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주요 법령의 목록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 기술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46호)

- 공공 측량의 작업 규정 세부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82호)
- 국유 철도 건설규칙(건설교통부령 제385호, 시행 2004. 1. 1.)
- 궤도 운송법(법률 제18185호, 2021. 5. 18., 일부 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미국, 제2081호)(국문본) 부속서 6-가
- 도시 철도 차량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3)
- 어선 설비 등에 관한 규칙(농수산부령 제749호)
-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20호)
- 전력 유도 전압의 구체적 산출 방법에 대한 기술 기준(국립 전파 연구원 고시 제2012-10호)
- 지적 측량 규정(각령 제1242호)
- 철도 건설 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 철도 건설 사업 시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9호)
- 철도 사업 특별 회계 사무 처리 규칙(교통부령 제468호)
- 철도 시설 안전 세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14호)
- 철도 차량 운전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35호)
- 통행세법 시행 규칙(재무부령 제230호)
- 포장면 상태 관리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예규 제158호)
-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30호)
- 항공 교통 관제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4호)
- 항공 교통 업무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호, 2019. 1. 25., 일부개정)
- 항공 교통 업무 우발 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893호)
- 항공 교통 흐름 관리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 항공 등화 설치 및 기술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2호)
- 항공 사진 측량 작업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261호)

용어들 가운데에 일반화되거나 대중화된 것들은 신문, 방송, 잡지사 등의 언론사에서 생산한 여러 형태의 기사 등에 실려 있는 것들이 많았다. 사용 예시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와 같은 언론사의 기사에서 확보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주요하게 검색한 주요 언론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5)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기사 발간 주요 언론사 목록

- 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거제인터넷신문, 건설기술, 건설타임즈,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매일, 경남일보, 경북매일, 경인일보, 경향신문, 공학저널,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국민일보, 국방일보, 국제뉴스, 국토매일, 국토일보, 글로벌이코노믹, 기계설비신문
- 나: 노컷뉴스, 농민신문, 뉴데일리, 뉴스와이어, 뉴스웍스, 뉴스티엔티, 뉴스핌, 뉴스1, 뉴시스
- 다: 단비뉴스, 대구일보, 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대한경제, 대한뉴스, 대한전문건설신문, 더구루, 더팩트, 더퍼스트미디어, 데일리경제, 데일리안, 데일리카, 데일리한국, 동아경제, 동아사이언스, 동아일보,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조선일보
- 라: 레디앙, 로봇신문
- 마: 매일경제, 매일안전신문, 매일신문, 매일일보, 머니투데이, 메트로신문, 무등일보, 문화뉴스, 문화일보, 물류신문, 미디어오늘, 미주중앙일보
- 바: 베리타스알파, 베타뉴스, 부산일보, 브레이크뉴스, 브릿지경제, 비즈한국
- 사: 사이언스더타임즈, 산업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세종의소리,少年한국일보, 소방방재신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스카이데일리,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 시니어매일, 시민일보, 시사뉴스, 시사저널, 시티저널, 신동아, 신소재경제신문, 신아일보
- 아: 아시아경제, 아시아타임스, 아이뉴스, 이이티데일리, 아주경제, 안전신문, 어린이동아, 에너지경제, 에이빙뉴스,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울산매일, 월간월예, 월간 전원 속의 내 집, 월간조선, 위키트리,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코노미조선, 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믹리뷰, 이투데이, 인더뉴스, 인천in, 일간스포츠, 일다, 월간산, 월간전기, 일요시사, 일요신문
- 자: 잡포스트, 전기신문, 전북일보, 전자신문, 정보통신신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매일,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주간경향, 중도일보, 중앙일보
- 차: 철강금속신문, 충북일보, 충청뉴스
- 카: 컨슈머타임스,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 타: 통일뉴스, 테크월드
- 파: 파이낸셜뉴스, 퍼블릭뉴스, 프레시안, 플랫폼뉴스
- 하: 한겨레, 한국강사신문, 한국건설신문, 한국경제, 한국목재신문, 헤럴드경제, 헬로티, 헬스조선
- 기타: e대한경제, EBN, FPN, JTBC, KBS, MBC, SBS, SPACE(공간), topclass,

용어들 중에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언론사의 기사 등을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는 잘 검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 중에는 특허 출원 문서나 특허를 받은 문서 등에서는 검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점에서 특허 관련 문서도 주요한 검색 대상이 되게 되었다.

(6)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주요 특허 목록

- 거버교(Gerber bridge)의 힌지부 보강 구조(특허 출원 공개 10-1997-0702403)
- 고장 이력 추적 장치 및 고장 이력 추적 방법(등록 특허 10-2172641)
- 과전압 보호 장치(특허 출원 번호 10-2003-0053426)
- 권철심 코어의 권취 방법(등록 특허 10-2012-0113055)
- 내구성 및 수평 유지를 향상시킨 산형 레일형 밑틀을 갖는 미달이용 문틀의 결합 설치 구조(등록 특허 10-0912608)
- 다이폴 안테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배열 안테나 장치(공개 특허 10-2018-0105833)
- 매립형 궤도를 구성하는 레일의 선형 설정을 위한 레일 조립대(공개 특허 10-2014-0056834)
- 분진 비산 겸 사태 방지 조성물(등록 특허 10-1812575-0000)
- 삭도 운반기의 문짝 개폐 장치(공개 번호 특허 1987-0000268)
- 산술 논리 연산 유니트용 장치 및 방법(특허 공개 번호 10-1988-0014465)
- 산적 화물 회수 장치(특허 등록 번호 10-0748645-0000)
- 슬라브 트랙(공개 특허 10-2014-0091756)
- 연료용 세정 첨가제(특 1994-0008390)
- 열차의 감속 제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등록 특허 0154689)
- 열차 점유 검지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 특허 10-0873322)
- 원격 해정이 가능한 도어록 시스템(공개 특허 특2000-0061512)
- 자동 제동, 급제동 또는 비상 제동의 경우에 철도 차량의 압축 공기 제동 장치의 제어 방법(공개 특허 10-2015-0017332)
- 철도 차량용 조타 대처(등록 특허 10-1534451)
- 철도 차량용 차륜 답면 찰상 발생 시험 시스템 및 그 시험 방법(등록 특허

10-0799335)

- 철도 차량용 합성 제륜자(등록 특허 10-0683586)
- 특히 타워 크레인용 지브 요소의 격자형 거더의 삼각 접속 구조(등록 특허 10-0925808)
- 풍력 발전기 유지 보수 장치 및 방법(특허 공개 번호 10-1764541-0000)
- 화물 철도 차량용 3축 대차 장치(등록 특허 10-1845334)
- ISM 대역용 소형 안테나(특허 등록 번호 10-1352062-0000)

이와 같이 특허 관련 문서에서는 철도, 항공, 항만 모든 영역에서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용어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덕택에 상당히 많은 사용 예시가 이곳에서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특허 관련 문서가 특수성을 띤 용어의 실제 쓰임을 확인하는 데에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4. 용어 검토 및 보완

보조 연구원이 집필을 한 용어는 공동 연구원들이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검토는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집필되어 채워졌는지, 전문 분야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즉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사용 예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작업 순서에 부합하게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들이 착실히 제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을 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채워 넣어 정비 내용에 빈칸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였다. 검토 작업의 기준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과 연구진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지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업을 해 나가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진 내의 협의를 통하

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처리 방향이 주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논의를 거쳤다.

실제로 월별 보고와 중간보고 등의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하여 국립국어원과 정비 지침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의 개정 이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비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 개정 이력 (23년 1월 10일 기준)

□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 지침서」 2.4버전(2022. 10. 25. 개정)

○ 6쪽

개정 전

- 대상 용어가 로마자로 된 약어인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예

『지적 용어 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비 전

정비 후

대상 용어

대상 용어

차동GPS

차동^지피에스

개정 후

- 대상 용어가 로마자로 된 약어인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이때 로마자가 포함된 용어의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한다.

예

『지적 용어 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비 전

정비 후

대상 용어

대상 용어

검색용 이형태

차동GPS

차동^지피에스

차동^GPS

○ 6쪽

개정 전

○ 대상 용어의 규범 표기가 미확정인 경우 만약 미확정 표기가 여럿이면, 어문 규범에 준한 표기를 ‘용어’ 칸에 입력하고 나머지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개정 후

○ 대상 용어가 미확정 표기 여럿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어문 규범에 준한 표기를 ‘용어’ 칸에 입력하고 나머지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 대상 용어가 미확정 표기 하나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원자료집에 있는 형태 그대로 입력한다.

예 『지적 용어 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비 전	정비 후	
대상 용어	대상 용어	검색용 이형태
차동GPS	차동^지피에스	차동^GPS

- 대상 용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으나 규범 표기가 미확정이고 국립국어원 누리집 ‘외래어 용례 찾기’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료에 제시된 표기가 유일레일 경우 원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표기 형태로 입력한다.
- 원자료에 미확정 표기가 여럿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규범 표기에 가까운 것을 입력하고 나머지 것은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 외래어 표기법의 규범성 판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외래어 용례 찾기’를 가장 우선하고 이에 이어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따라서 이 둘의 표기법의 다를 경우에는 누리집의 외래어 용례를 따른다.

○ 15쪽

개정 전	개정 후
○ 원어로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역어는 대상 용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용어를 의미한다. 대역어는 대역어 항목에 입력하고, 해당 대역어의 약어가 있는 경우 ‘대역어>약어’에 입력한다.	○ 원어로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역어는 대상 용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용어를 의미한다. 대역어는 대역어 항목에 입력하고, 해당 대역어의 약어가 있는 경우 ‘대역어>약어’에 입력한다.

○ 16쪽

개정 전	개정 후
하나의 정의문은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한다.	하나의 정의문은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한다. - 어떤 용어가 여러 개념을 지니는 다의어인 경우에는 개념별로 대상 용어를 추가하여 집필한다.

○ 18쪽

개정 전	개정 후
기타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 및 형식: - (기관명), 책 제목, 쪽수	기타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 및 형식: - (기관명/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 논문 제목과 단행본 제목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논문 제목에 작은따옴표를 넣어 구별하여 표시한다.

○ 18쪽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항목	- 사용 예시의 맨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표시한다. 사용 예시가 명사구 등의 구인 경우에도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 사용 예시의 출처를 제시할 때 맨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19쪽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한다. - 용언의 경우 어미를 포함하여 굵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한다. -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작업 예시 캡처 화면 추가)

○ 25쪽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역어가 로마자인 경우,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 명사, 독일어의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 대역어에 본말과 그 약어를 함께 입력할 때 두문자어(로마자)로 된 약어는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본말 중 약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 지침서」 2.5버전(2023. 1. 10. 개정)

○ 17쪽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문에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의 특수 문자가 포함될 경우 시스템 내 '특수 문자 입력기'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 특수 문자 입력기에 없는 단위 기호는 로마자(소문자)로 표기한다(예: mm, cm, km, g, kg 등).

○ 19쪽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예시에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의 특수 문자가 포함될 경우 시스템 내 '특수 문자 입력기'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 특수 문자 입력기에 없는 단위 기호는 로마자(소문자)로 표기한다(예: mm, cm, km, g, kg 등).

□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 지침서」 2.6버전(2023. 1. 18. 개정)

○ 11쪽

개정 전	개정 후
단, 단어中间的 글자가 약어로 쓰일 때는 대문자로 적지 않는다.	단, 대상 용어의 원어가 한 단어이고 단어中间的 글자가 약어로 쓰일 때는 대문자로 적지 않는다.

○ 18쪽

개정 전	개정 후
- 사용 예시의 맨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표시한다. 사용 예시가 명사구 등의 구인 경우에도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 맨 끝에 반드시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넣는다. 명사구 등의 구인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19쪽

개정 전	개정 후		
신규 항목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 및 형식>		
		작성 순서 및 형식	예시
	기타(특허)	등록특허명(등록특허번호), 쪽수	<div>기타 ▼</div>

용어 검토 및 보완을 포함한 정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을 연결하여 과업을 수행하였다. 즉 공동 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듬을 편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였다.

공동 연구원 - 보조 연구원 분야별 인력 구성

담당분야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항공 용어 / 항공 사고 용어	조재형	런명지에, 김다솔
항공 용어	조경순	미즈카이 유카리, 하현정, 강은진
항공 용어	유하라	강은진, 최옥정
항공 용어 / 철도 용어	이수진	최옥정, 김서홍, 이유미
철도 용어	임태운	이유미, 박정은, 조하진, 고상미
철도 용어	최지영	고상미, 오지수
철도 용어 / 항만 용어	최윤	런명지에, 김다솔, 미즈카이 유카리, 하현정, 강은진, 최옥정, 오지수, 이지성
철도 용어 / 항만 용어	선한빛	최옥정, 김서홍, 이유미, 박정은, 조하진, 고상미, 오지수, 이지성, 전철한

*굵은 글씨는 철도 용어 포함 작업자

[그림 6] 공동 연구원 - 보조 연구원 분야별 인력 구성표

이를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의 접점이 많아 지도록 하여 용어를 분배한 후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으로써 집필과 검토가 호흡을 맞추어 원만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토 작업을 한 후에 책임 연구원이 살펴보고 정확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작업자들 사이의 편차가 생기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적절히 하였다.

3.5. 감수 및 보완

3.5.1. 전문 분야 전문가

연구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들은 전문 분야별로 결과물을 추출하여 <표 5>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내용 감수를 요청하여 용어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검토를 받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내용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표 5> 전문 분야 및 분과별 감수 관련 정보

분야명		위원 정보	위원명	소 속
전문 분야 내용	항만 용어		이종인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조교수
	항공 용어		신성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이희남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공학부 교수
			안기준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조교수
	철도 용어		김철수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
			최상현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
			김석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부교수
			윤덕수	우송대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교수
			김형준	경일대 철도학부 부교수

감수 위원들에게 검토를 요청한 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였다.

- ① 전문 분야 판단의 적절성: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 하여 판단하기로 한 방향에 맞게 잘 분류되었는지 판단 요청
- ② 용어(표제어) 및 원어 제시의 정확성: 용어의 표기, 특히 이 용어에 대응하는 제시된 원어가 정확한지를 검토 요청
- ③ 정의문 기술의 정확성과 용이성: 정의문은 전문 분야의 의미 사용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간결하고 고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이 보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재의 정의문이 이 방향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제시를 요청

- ④ 사용 예시(용례)의 적합성: 용어의 의미와 용법에 걸맞게 쓰인 보기로서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어긋난 사용 예시가 제시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사용 예시 대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
- ⑤ 관련 용어 제시의 정확성: 용어(표제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용어들 사이의 관계가 잘 표시되었는지를 살펴 이상하거나 잘못 제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를 요청
- ⑥ 대역어 제시의 정확성: 대역어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대역어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를 요청

감수 작업은 정비 작업이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감수위원 역시 감수 분과에 분과원으로 등록하고 감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과업의 감수 분과는 검토 2단계로 설정하여 1단계 검토는 전문 분야 감수, 2단계 검토는 원어 및 국어, 사전적 감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작업 단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엑셀 형태의 자료를 내려받은 후 이 자료를 검토하여 감수 내용이 있는 것들을 시스템에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였다. 감수 의견은 시스템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달도록 하였다. 이처럼 감수 의견이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만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진에서는 ‘감수’ 분과의 ‘검토 중’인 용어는 시스템의 검색 조건을 이용하여 감수 의견이 있는 용어만을 목록으로 출력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검토 작업의 청취 및 반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모 기능은 관련 항목마다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 7]과 같은 식으로 감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분야 분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건설/교통 > 항공교통기술
	정부 기능 분류 체계 (BRM)	-
	우리말샘 전문 분야	공학 > 교통
용어	항공*보안*시설	
	〈감색록 이형태〉	
원어	航空保安施設	
아종	한자어	
정의문	〈한국어〉 전파, 등광, 발광, 형상 따위에 의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돕는 시설. 항공 보안 무선 시설, 항공 등화, 주간 장애 표시 따위가 있다.	
	출처 기타: 항공용어사전(국토교통부)	
사용 예시	항공 보안 시설은 레이더, 전방항 표시 시설, 계기 착륙 시설 등 항공기가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착륙, 비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기술 수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설을 설치해 전 세계 모든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보도자료: 연합뉴스, 1997. 5. 13., 제6회 항공 보안 시설 기술 세미나	
관련 용어	일치어: 항공*보안*시설	
대역어	〈영어〉 advanced navigation facilities	
번역어		
참고 사항		
멀티미디어		

원자료 고유번호: 1000065-0000355

메모 이력 보기(건)
작업 이력 보기(건)

[그림 7]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메모 기능을 활용한 감수 활동 화면

이런 「용어 구축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림 8]과 같이 메모에 남긴 감수 의견을 검토하여 정비 내용을 보완하였다.

메모이력 보기

용어
항공*보안*시설

과제

분과

전체

등록일

~

전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등록자

전체

찾기

등록 일시	분과	작업	항목	의견	등록자
2023.1.19. 16:16:18	감수	임시 저장	용어, 원어, 어종, 관련 용어, 정의문, 사용 예시, 대역어	"항공보안시설"이라는 용어는 2000년도 전까지 사용한 용어로 파악됨. 따라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임. 해당내용은 모두 "항행안전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임.	안기준 (<div></div>)

[그림 8] 감수 내용 확인 팝업창

- 50 -

3.5.2. 원어 관련 전문가

표제어의 원어가 정확한지, 오탈자는 없는지를 원어 관련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검토를 받았다. 실제 정비 자료가 어원상 한자어와 영어계 외래어가 다수를 이루므로 한자어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다.

감수 위원 및 역할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6> 원어 관련 감수 정보

감수 내용 \ 위원 정보		감수 위원	소 속
원어	영어 등 인구어	백승현	전남대 영어문학과 교수
	한자어 및 일본어	장원재	계명대 일어일문학전공 교수

원어 관련 감수 작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엑셀로 내려받은 모든 항목에 감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제공한 파일에 감수 위원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된 열에 직접 표시하여 제시하여 연구진에 전달하였다. 이렇게 전달받은 파일을 연구진에서 보면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원어 정보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형태로 원어 감수 결과를 반영하였다.

3.5.3. 국어 및 사전 전문가

정비 작업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이 정의문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답고 정확하고 간명하게 표현되었으며, 담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어 및 사전 전문가에게 감수를 요청하여 검토를 받았다.

감수 위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7〉 국어 및 사전 관련 감수 정보

감수 내용	위원 정보	
	감수 위원	소 속
국어 및 사전	남경완	창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예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부교수

국어 및 사전 전문가 감수 작업도 전문 분야 감수 및 원어 감수와 마찬가지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엑셀로 내려받은 모든 항목들에 감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는 전문 분야 감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수’ 분과에 감수 위원을 분과원으로 등록하고 2단계 검토자로 역할을 지정하여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후 감수 위원이 검토를 한 결과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직접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을 남기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의견을 연구진에서 추출하여 검토한 후 수정 및 보완을 하는 형태로 적절히 반영하였다.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4.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표제어의 개수는 모두 10,004개이다. 기구축 용어별로 정비 완료를 한 항목의 개수는 <표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8> 정비 완료 분야별 용어의 개수

용어집명 \ 용어 개수	원자료 용어	정비 대상 용어	검토 완료 용어
『항만 용어 사전』	2,225	1,268	1,028
『항공 사고 용어 사전』	28	23	14
『항공 용어 사전』	8,442	4,774	3,130
『철도 용어 사전』	10,631	10,021	5,832
계	21,326	16,086	10,004

실제로 집필을 시도한 용어는 앞의 <표 4>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16,086개였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 작업을 하다 보니 사용 예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용어는 10,004개였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철도 용어 사전』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용어가 정비되었고 이어서 『항공 용어 사전』, 『항만 용어 사전』, 『항공 사고 용어 사전』의 순으로 용어가 정비되었다. 기구축된 원자료 용어 개수 대비 정비 대상으로 배분 용어의 비율은 ① 항만: 56.98%, ② 항공 사고: 82.14%, ③ 항공: 56.55%, ④ 철도: 94.26%였다. 정비 대상으로 배분된 용어 대비 실제 사용 예시까지 다 갖추고 검토가 완료된 용어의 비율은 ① 항만: 81.07%, ② 항공 사고: 60.86%, ③ 항공: 65.56%, ④ 철도: 58.21%였다.

정비가 된 용어 10,004개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 분야별 용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건설/교통’, ‘기계’, ‘지구과학’, ‘전기/전자’, ‘물리학’, ‘사회과학’, ‘재료’, ‘정보/통신’, ‘화학’, ‘수학’ 등의 분야의 차례로 다수의 용어가 분포하였다. 정비된 용어 10,004개가 용어집별로 어떤 분야에 분포하는지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정비 완료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결과

순위	대분류	용어집명				대분류별 용어 총계
		철도	항만	항공 사고	항공	
1	건설/교통	3,145	438	5	1,481	5,069
2	기계	823	41	1	752	1,617
3	지구과학	185	380	0	254	819
4	전기/전자	446	9	0	79	534
5	물리학	273	60	0	151	484
6	사회과학	182	16	4	152	354
7	재료	326	5	0	18	349
8	정보/통신	193	1	0	140	334
9	화학	86	4	1	42	133
10	환경	62	55	0	6	123
11	수학	47	2	0	15	64
12	보건의료	11	2	3	19	35
12	에너지/자원	21	10	0	4	35
14	화공	10	2	0	6	18
15	농림수산식품	6	2	0	1	9
16	문화예술체육학	4	0	0	4	8
17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6	0	0	1	7
18	생명과학	4	1	0	1	6
19	인문학	1	0	0	2	3
20	뇌과학	0	0	0	1	1
20	인지·감성과학	1	0	0	0	1
20	기타	0	0	0	1	1
23	원자력	0	0	0	0	0
용어집별 용어 총계		5,832	1,028	14	3,130	10,004

각 분과 내에서의 분야별 분포를 확인하여 보면 기구축 용어집에 어떤 성격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이는 각 용어집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철도 용어 사전』에서는 ① 건설/교통 > ② 기계 > ③ 전기/전자 > ④ 재료 > ⑤ 물리학 > ⑥ 정보/통신 등 분야의 순으로 용어가 분포되는 반면 『항공 용어 사전』에서는 ① 건설/교통 > ② 기계 > ③ 지구과학 > ④ 물리학 > ⑤ 정보/통신 > ⑥ 전기/전자 분야의 용어들이 분포한다. 이것은 교통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분야별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어떤 전문 분야 용어가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과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용 예시의 구축이었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쓸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정보이다. 사용 예시를 확보하여 정비 완료된 용어는 10,004개로 이는 이번 사업의 목표치를 충족하였다.

사용 예시는 용어별로 하나씩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세 개의 사용 예시가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사용 예시를 제시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가 현실 언어에서 다양한 사용 예시를 보일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용 예시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공공 기관 등의 누리집에 실린 안내 글 또는 공개 자료,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특허 자료,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적인 언어 사용을 충분히 대표하는 것들이다.

4.2. 표제어 및 원어 정비

표제어 및 원어는 정비 지침에 따라 표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정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규범 표기가 정해진 용어는 규범에 맞는 표기만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비규범 표기가 실제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 표기가 있다면 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비규범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제어가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를 표시하여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음을 표시하였다.

□ 표제어 처리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국제표준시, ^줄루시간’과 같이 표제어에 동의어가 병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국제 표준시’, ‘줄루 시간’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용어로 집필하는 것으로 함.
- ‘Z-마커’와 같이 용어에 대시가 있는 경우 대시를 삭제하고 집필함. 로마자로 표시된 것은 모두 한글로 표기함.
- 표제어로 ‘I^say^again’과 같은 문장이 등재된 경우 해당 표현이 용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휘화된 것이 아니라면 정비 대상 용어로 삼지 않음.
- ‘중간^기착^비행^계획(서)’와 같이 대상 용어에 괄호 표시로 제시된 부분은 ‘중간^기착^비행^계획’과 ‘중간^기착^비행^계획서’로 나누어 집필하고 유개념이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처리함.
- ‘Common^ICAO^Data^Interchange^Network’와 같이 대상 용어가 원어로 되어 있는 경우 음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용어를 일반 언중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 용어로 삼지 않음.

원자료 분석 결과 위와 같이 형식적인 부분도 정비하였으며 표제어에 대응하는 원어 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바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표제어의 원어 처리

대상 용어	원어	어종
회오리바람	원어 없음(고유어)	고유어
날개	원어 없음(고유어)	고유어
칸	원어 없음(고유어)	고유어
완목	[한자]腕木	한자어
절토	[한자]切土	한자어
비트	[영어]bit	외래어
에이스	[영어]ace	외래어
에스에이에이	[영어]SAA(Singapore Aviation Academy)	외래어
자갈^도상	[고유어]자갈[한자]道床	혼종어
가로세로비	[고유어]가로세로[한자]比	혼종어
현수식^모노레일	[한자]懸垂式[영어]monorail	혼종어
포스트^텐션^방식	[영어]post tension[한자]方式	혼종어
트랜스미소미터	[영어]transmissometer	외래어

먼저 원어와 관련하여 대상 용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정비 지침에 따라 원어 정보 칸을 비워 두었다. 그리고 대상 용어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표제어는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구성 요소의 경계를 표시하였으나 원어의 한자는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다. 원어가 일반 명사 중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어가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표제어가 로마자 두문자어로 된 약어인 경우,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소괄호 안에 본말을 기재하였다. 이때 본말(줄어들지 않은 본래의 용어) 중 약어(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인 용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다. ‘에스에이에이’가 이에 해당하는 예라 하겠다.

원어가 혼종어인 경우, 각각의 언어 종류를 선택하고, 언어별로 원어를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위 표에서 ‘자갈^도상’, ‘가로세로비’, ‘현수식^모노레일’, ‘포스트^텐션^방식’이 이런 혼종어에 해당하며, 원어의 구성이 다양한 경우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표제어와 원어 정보 처리는 이와 같은 지침과 처리 방향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를 감수 위원에게 보이고 검토를 요청하여 보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보완하였다. 감수 위원이 제시한 감수 결과는 연구진에서는 논의를 통하여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였다.

1) 표제어

(1) 실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경우

원자료 내용	감수 의견	정비 결과
곡기^비행	대분류:건설/교통 중분류:항공교통기술 용어:곡예^비행	곡기^비행
흑빙	‘흑빙’이라는 용어는 너무 어렵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언론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블랙^아이스’로 바꾸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흑빙

표제어의 경우 대부분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오류가 없다면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시된 용어를 기반으로 정비하였으나 감수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용어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감수 내용은 해당 용어의 현실적인 유통 양상을 지적한 것이므로 살아 있는 용어 사용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본 과업의 목적이 기구축 용어집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있고,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 제시된 용어집이 만들어질

때의 용어 쓰임 실태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며, 이 원자료에서 제시한 용어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표제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어

(1) 원어 정보가 누락된 경우

용어	원어 정보	
	원자료 내용	정비 결과
공기^압력계	(없음)	<한자>空氣壓力計
맥스웰^브리지	(없음)	<영어>Maxwell bridge
뷔겔	(없음)	<독일어>Bügel
뷔페	(없음)	<프랑스어>buffet
삼케이^작업	(없음)	<한자>三<영어>K<한자>作業

기구축 용어 자료집에는 원어 정보가 없는 용어가 다수 확인되어 이를 충실하게 보완하여 정비하였다. 원어가 고유 명사에 해당하여 기원적으로 어느 언어에서 유래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어의 어종을 밝히지 않았다. 이것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샘』에 실린 외래어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한국어어문 규범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이용하여 검색으로써 얻은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잘못된 원어 표기가 된 경우

용어	원어 정보	
	원자료 내용	정비 결과
모자형^레일	<한자>帽子型軌條	<한자>帽子型<영어>rail
몰드	<한자>形	<영어>mould
선로변^레벨	<한자>線路邊 레벨	<한자>線路邊<영어>level

용어 표기와 원어 정보에 과리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바로잡아 정비를 하였다.

‘모자형^레일’의 경우는 ‘레일’과 ‘軌條’가 대응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를 ‘rail’로 수정하여 정비하였다. ‘몰드’의 경우는 원어로 ‘形’이 제시되었던 것인데 ‘몰드’의 표기와 정의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mould’로 정비하였다.

(3) 원어의 언어명 및 표기 수정

표제어	원어 정보	
	원자료 내용	정비 결과
지오이드고	<한자>-高	<영어>geoid<한자>高

정비 내용 중에는 원어 일부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지오이드고’의 경우가 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원어가 ‘geoid高’로 입력되어야 하나 ‘geoid’가 누락된 상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geoid’를 추가하고 원어의 언어명을 ‘영어’로 표시하였다.

(4) 철자 누락

표제어	원어 정보	
	원자료 내용	정비 결과
양구^스패너	兩口panner	兩口spanner
역무^자동화^장치	驛務自動裝置	驛務自動化裝置
거더	girde	girder

원어 정보 가운데는 철자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하여 ‘양구^스패너’, ‘역무^자동화^장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철자를 보완하였다.

4.3. 전문 분야 분류

어떤 용어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분야에서 걸쳐 쓰이는 용어가 많아 용어의 사용 분야를 특정하기 어렵고 어떤 용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이에 표제어의 형태만을 가지고서는 분야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처리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과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덧붙여 『우리말샘』에 동일한 용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분야 분류를 참고하여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삼동변(三動弁)’의 정의문은 ‘차량의 제동, 완해, 충기 작용을 하는 차량 제동 장치의 일종.’이다. 이에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에서 ‘기계’로, 중분류에서 ‘자동차/철도 차량’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정비 대상 어휘 모두를 대상으로 분야 분류를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 분야 전문가에게 분야 분류의 적절성의 판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 사항을 받았다.

(1) 분야 분류 관련 감수위원의 감수 내용

용어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정의문
	대분류	중분류	감수 의견	
성인^운임	경제/경영	기타 경제/경영	건설/교통 기타 건설/교통	만 12세 이상의 승객에게 적용되는 성인 요금.
경사각	기계	항공시스템	건설/교통 항공교통기술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진 각도. 즉, 비행기의 좌우 축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 통상 보조익에 의하여 조종된다.

‘성인^운임’의 경우 ‘요금’이라는 정의문의 용어에 초점을 두고 ‘경제/경영’으로 구분하였으나 감수위원은 ‘승객’에 초점을 두어 ‘건설/교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의문이 제시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용어가 쓰이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분야 분류를 다시금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말샘』에서 ‘운임’으로 끝나는 전문 용어들의 분야 분류가 어떤지를 참고하였다. 『우리말샘』에서는 ‘운임’으로 끝나는 표제어가 모두 90개가 실려 있다. 이 중 일반어 1개와 북한어 2개를 제외한 전문 용어는 모두 87개이다. 여기에서 「경제」로 분류된 것들은 56개, 「경영」으로 분류된 것은 1개, 「교통」으로 분류된 것은 15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2개, 「기계」로 분류된 것은 13개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지만 ‘성인^운임’이 『항공 용어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우리말샘』

에서는 「교통」에 속한 용어에 ‘가중^할인^운임’, ‘주회^운임’, ‘항공^운임’과 같이 항공 분야에 속하는 용어들이 「교통」으로 분류되어 처리되어 있다. 이런 『우리말샘』의 처리 상황과 정비 대상 용어가 『항공 용어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통」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²⁾

‘경사각’은 ‘비행기의 각도’에 초점을 맞춰 ‘기계’의 ‘항공 시스템’으로 분류하였으나 감수 위원은 정의문의 추가 설명인 ‘통상 보조익에 의하여 조종된다.’에 초점을 두고 대분류는 ‘건설/교통’, 중분류는 ‘항공교통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용어가 실제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았을 때 ‘경사각’이 ‘조종사의 조종 기술’ 및 ‘비행기의 운행 기술’ 등의 내용에서 사용됨을 확인하여 감수 의견을 수용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4.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정의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작업상의 기본 원칙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따르면 2장에서 제시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의문 정비를 수행하였다.

이번 과업 또한 “~A. 또는 B.” 혹은 “①~. ②”와 같이 정의가 된 것들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A. 또는 B.”,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된 것들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코치(coach)’의 정의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체육 분야의 의미가 “「2」『체육』 운동 경기의 정신·기술·전술 따위를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훈련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 있다.

2)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사업 완료 이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에서는 『우리말샘』의 ‘운임’, ‘비용’ 계열어를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서 교통 경제, 공공경제, 산업/서비스 경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학’ 분야로 분류하였다.(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전문 분야 분류 지침 V5. 참고)

여기에서 ‘~일’과 ‘~사람’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정의로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어사전에서 처리되어 있는 표제어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다. 이런 정의 방식에 따라 전문 분야의 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 어렵지 않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는 이번 정비 과업의 기본 지침에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뜻풀이를 분리하여 별개의 의미로 기술을 하였다. 다음의 예는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11> “~A. 또는 B.”, “①~. ②”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표제어	기존 정의문 방식	정의문의 분리
하중	① 화차에 화물 적재 가능 최대중량을 말하며 화차 자체의 중량인 자중과 구분됨 ②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작용.	1. 화차에 화물 적재 가능 최대 중량. 화차 자체의 중량인 자중과 구분된다.
		2.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작용.
표면^처리	① 자갈 도로면 또는 포장표면에 역청재료를 얇게 살포하고, 이것을 쇄석으로 덮어 두께 2.5 cm 이하의 표층을 만드는 공법. ② 일반적으로 금속재료의 표면을 목적에 맞는 성질로 만드는 처리를 말하며, 표면경화, 도금, 방식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러가지 처리법이 있음.	1. 자갈 도로면 또는 포장 표면에 역청 재료를 얇게 살포하고, 이것을 쇄석으로 덮어 두께 2.5 cm 이하의 표층을 만드는 공법.
		2.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의 표면을 목적에 맞는 성질로 만드는 처리. 표면 경화, 도금, 방식 등 여러 가지 처리법이 있다.
포화도	① 비교습도. 어떤 공기의 절대습도와 이것과 같은 온도의 포화공기에 대한 절대습도의 비율. ② 흙의 간극체적에 대한 간극중의 물의 체적의 비율. 백분율로 표시함.	1. 비교 습도. 어떤 공기의 절대 습도와 이것과 같은 온도의 포화 공기에 대한 절대 습도의 비율.
		2. 흙의 간극 체적에 대한 간극 중의 물의 체적의 비율. 백분율로 표시한다.

본 연구진에서는 전문 분야 감수 위원, 국어 및 사전 분야 감수 위원에게 요청을 하여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청취하였다. 이번 정비에서 이루어진 감수 결과 큰 문제는 없었으며, 띄어쓰기로 인한 의미 전달의 불명확함 문제, 띄어쓰기 오류, 문장 부호 오류 등이 주로 발생하였다. 해당 내용들은 감수 위원의 감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단순 오류 외에 형식 오류, 정의문의 내용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연구진 내부의 논의를 통하여 정비 내용에 반영하였다.

1) 전문 분야 전문가의 감수 내용 반영

(1) 정의문의 내용이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용어	정의문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비행^고도	특정한 기압(<u>113.2hpa</u>)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압 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	특정한 기압(<u>1013.25hpa</u>)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압 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

감수 내용 중에는 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 핵심은 용어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관한 것이 지금의 현실에 부합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은 용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감수 결과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판단하였다. 이에 감수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2) 정의문이 용어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 경우

용어	정의문	
	감수받기 이전의 정의문	감수 의견 반영 결과
비상^탈출	<u>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것.</u>	<u>비행기가 지상 또는 강이나 바다 수면위에 불시착한 경우 승객 및 승무원이 비행기 밖으로 탈출하는 것.</u>
기본^운항^중량	<u>항공기의 자중에 표준 운항 장비의 중량을 더한 전체 중량.</u>	<u>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사에서 출고될 때 아무것도 탑재되지 않은 항공기 무게에 항공사 운영을 위해 장착한 필수 장비와 승무원 등 서비스 재화를 합산한 무게.</u>

감수 의견 중 정의문이 용어의 의미를 특정 분야 내지 특정 영역의 의미만을 싣고 있어서 보다 일반적인 차원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용어 사용자들이 흔히 접하는 의미가 현재와 같은 특정 분야 내지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위 예에서 보듯이 먼저 ‘비상^탈출’의 경우 이런 유형의 탈출이 꼭 낙하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행기가 불시착한 경우 비행기 밖으로 탈출하는 것에 역점을 맞추어서 정의를 하였다.

‘기본^운항^중량’은 애초의 정비안에서는 ‘자체 중량+표준 운항 장비 중량=기본 운항 중량’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감수 결과 ‘자체 중량+표준 운항 장비 중량+승무원+기타 서비스 재화=기본 운항 중량’이 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기본 운항 중량의 구성 요소를 더 첨가하여 특정 영역의 의미만을 담지 않도록 하였다.

(3) 정의문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되어 작성된 경우

용어	정의문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공중^급유	항속 거리를 증대하기 위해서 비행 중에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연료를 넣어주는 일.	공중에서 공중 급유기를 통하여 연료를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공급하는 일. 이로써 항속 거리를 증대할 수 있다.

정비한 정의문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되어 작성되었다는 감수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공중^급유’의 경우 ‘급유’는 기름을 넣는 일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 급유를 하는 데에는 ‘공중 급유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기존의 정의문은 공중 급유를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항속 거리를 증대하는 것은 이런 급유를 통한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 정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공중 급유를 하게 되면 비행기의 항속 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바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비행기가 기름을 적게 넣고 이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름의 무게만큼 이륙할 때의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현재의 정의문은 공중 급유가 항속 거리의 증대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4) 정의문에 사용된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용어	정의문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공기^역학적^제동	<u>큰 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u> 프로펠러나 가스 터빈 엔진으로부터의 <u>역추진력</u> 을 활용하는 제동 장치.	<u>착륙 거리 단축을 위해서</u> 프로펠러나 가스 터빈 엔진으로부터 <u>공기 역학적 역추진력</u> 을 활용하는 제동 장치.

위의 ‘공기^역학적^제동’의 예를 보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어려운 말(항력)이 정의문에 등장하여 용어의 정의문에 쓰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감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감수 의견을 수용하여 ‘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쉽게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5) 정의문에 담긴 내용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용어	정의문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공기^냉각	엔진과 같은 <u>구성품</u> 위로 공기를 직접 이동시킴으로써 <u>불필요한 열을 제거하는 냉각</u> 방법.	엔진과 같은 <u>뜨거운 구성품</u> 위로 <u>차가운 공기를</u> 직접 이동시킴으로써, <u>뜨거운 구성품과 차가운 공기의 열 교환을 통해 냉각시키는 방법</u> .
공역	특정 지리적 지역 위의 공간. <u>기존의 실관제 공역(positive control area)이 A등급 공역으로, 기존의 터미널 관제지역(terminal control area)이 B등급 공역으로 재구분되었다. A등급 공역은 오로지 계기 비행(IFR)만 인가된다. B등급 공역은 계기 비행(IFR) 운용 또는 승객 탑승이 특별히 많은 주요 공항 주변으로 형성된다.</u>	<u>항공기,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u>

정의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기^냉각’과 같이 정보 보충이 필요하다는 감수 의견과 ‘공역’과 같이 제시된 정보를 줄여서 용어에 해당하는 의미만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적정 정보량이 담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용어의 적정한 정의를 위해 적정량의 정보를 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2) 국어 및 사전 전문가의 감수 내용 반영

(1) 정의문의 문체 통일

표제어	정의문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흙의^투수성	흙은 아무리 잘 다졌더라도 공극은 그 이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속 되어 있는 공극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u>그 성질을 투수성이라 함.</u>	흙 입자의 연속되어 있는 공극 사이에 물이 흐르는 성질. 흙은 아무리 잘 다졌더라도 공극은 그 이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속되어 있는 공극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u>그 성질을 투수성이라 한다.</u>
후부^표지	주간에 최후부 차량 상부에 수평으로 전방 백색, 후방 적색의 원판 또는 등기 각 1개를 게출하는 열차표지. 야간에는 최후부 차량 양측 수평으로 전방 백색, 후방 적색의 등(깜박이는 경우 포함) 각 1개를 게출(예외 있음). <u>"뒷표지"로 용어 개정</u>	주간에 최후부 차량 상부에 수평으로 전방 백색, 후방 적색의 원판 또는 등기 각 1개를 게출하는 열차 표지. 야간에는 최후부 차량 양측 수평으로 전방 백색, 후방 적색의 등(깜박이는 경우 포함) 각 1개를 게출한다(예외 있음). <u>'뒷표지'로 용어를 개정했다.</u>
점착력	차륜과 레일 간에 생기는 <u>마찰력을 말하며</u> 차륜이 레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u>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점착력 때문임.</u>	차륜과 레일 간에 생기는 <u>마찰력. 점착력으로 인해</u> 차륜이 레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u>회전을 계속할 수 있다.</u>

정비한 정의문의 정비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용어에 대한 일차 정의는 용어의 품사에 따라 종결형을 결정

하고, 정의 관련 보충 내용은 설명문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대표로 제시된 ‘흙의^투수성’, ‘후부^표지’, ‘점착력’과 같은 경우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서 감수 단계에서 확인 후 정의문을 수정하였다.

(2) 정의문의 표현 수정

1차 정비가 완료된 정의문의 표현 감수를 시행한 결과 현재의 정의문이 어렵거나 사용된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감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제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의문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파형^철선’과 같이 ‘맞물도록 파형으로한 용접한다’와 같이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는 경우는 문장을 올바르게 바꾸어 의미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일시^사용’의 정의문에서 보듯이 ‘사용 수익하다’와 같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수익하다’가 쓰여 의미가 더해지고 내용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 간결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을 바꾸었다.

용어	정의문	
	작업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파형^철선	콘크리트와의 부착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인 커브 모양으로 변형시킨 철선. 서로 잘 맞물도록 <u>파형으로한 용접한다</u> .	콘크리트와의 부착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인 커브 모양으로 변형시킨 철선. 서로 잘 맞물리도록 <u>용접한다</u> .
일시^사용	민원인이 공공 재산을 <u>사용 수익하고자 하는</u> 경우 허가를 받는 것. 허가 신청은 동일 지역에서 1회에 한하며,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민원인이 공공 재산을 <u>사용하고자 하는</u> 경우 허가를 받는 것. 허가 신청은 동일 지역에서 1회에 한하며,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문장 부호,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1차 정비한 정의문 중 감수 단계에서 문장 부호 누락 및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은 감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하였다. 문장의 구조를 수정하거나 주술 호응을 위해 조사나 어미를 수정하여 최종 정비하였다.

표제어	정의문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흡상^변압기	통신 유도 장애 경감을 위하여 급전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 전류를 부급 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u>변압기</u>	통신 유도 장애 경감을 위하여 급전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 전류를 부급 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u>변압기</u> .
흡의^투수성	(없음) 흡은 아무리 잘 다졌더라도 공극은 그 이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u>연속되어</u> 있는 공극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그 성질을 <u>투수성이라 함</u> .	<u>흡 입자의 연속되어 있는 공극 사이에 물이 흐르는 성질</u> . 흡은 아무리 잘 다졌더라도 공극은 그 이웃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u>연속되어</u> 있는 공극 사이에 물이 흐르는데, 그 성질을 <u>투수성이라 한다</u> .

4.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구축한 사용 예시는 국립국어원의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O(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 처리했다.

또한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썼다. 정비 지침에 따라서 누리집이나 보도 자료의 경우 해당 용례가 제시되어 있는 인터넷 주

소(URL)를 제시하지 않았다.

□ 사용 예시 및 출처 관련 정보의 정비 내용

-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논문 제목과 책 제목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시함.
(기관명/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찍음.
-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볼드 처리)하며 용언의 경우는 어미를 포함하여 굵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는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함.
- 사용 예시의 출처를 제시할 때 맨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음.
- 사용 예시 출처에 누리집 주소는 제시하지 않도록 함.
- 사용 예시의 출처도 맞춤법에 따라서 표시함.
- 가운데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열어 이곳에 제시된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함.

이와 같은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의 작업 단계에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종합 검토 작업을 하면서 다시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 > 보도 자료 > 누리집 > 법령’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용어가 전문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뉴스 등에서 사용 예시를 찾기 어려웠으며, 전문 서적이거나 학술 논문, 특허 문서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6. 관련 용어 구축

관련 용어 구축은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관련어 구축 역시 정비 지침에 따라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일치하는 일치어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였다. 원어와 의미가 동일하더라도 사전에 따라 분야 분류가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일치어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하여, 기구축 정비물의 분야 분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지를 다룬 다음에 협의된 결과에 따라 분야 분류를 맞추고 일치어 연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제어 ‘게이지^타이’의 일치어로 ‘게이지^타이’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표제어	관련 용어	비고
게이지^타이	게이지^타이	일치어

이어서 용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용어에 해당하는 동의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동의어를 판단하는 데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참고하였다.

표제어	관련 용어	비고
내화성^재료	1. 내화재 2. 내화^재료	동의어
동하중	활하중	동의어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용어는 참고어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제어	관련 용어	비고
고정^편성^차량	특별^편성^열차	참고어
상행^열차	하행^열차	참고어

용어의 관련 용어 정보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감수한 결과 관련 용어 정비 부분에서 눈에 띄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역어 원자료가 최초 용어 구축 시스템에 등록될 때 글자 수 입력 제한으로 대역어의 철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였으나 미처 수정되지 못한 것은 감수 단계에서 바로잡았다.

(1) 철자 누락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배수로	<영어> drainage cana	<영어> drainage <u>canal</u>

검토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역어의 철자 누락은 감수 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정 반영하였다.

(2) 구성 요소의 수정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정비 내용	감수 의견 반영 결과
동기식^데이터^전송	1. <영어> <u>synchronized</u> data transmission	1. <영어> <u>synchronous</u> data transmission

기구축된 용어의 대역어를 감수받은 결과 대역어 구성 요소 중 문법상의 문제로 인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 위의 ‘동기식^데이터^전송’에서 볼 수 있듯이 ‘synchronized’가 ‘synchronous’로 수정되었는데 실제 백과사전 및 용례 검색 결과 기구축 자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synchronous data transmission’을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synchronous’로 수정하였다.

(3) 대역어의 삭제 및 띄어쓰기 수정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감수 내용
가공^단선식	1. <영어>single trolley <u>system</u> 2. <영어>overhead single line system	1. 삭제 2. <영어>overhead single line system
가공^삭도	1. <영어>aerial <u>rope way</u> 2. <영어>aerial <u>cable way</u>	1. <영어>aerial <u>ropeway</u> 2. <영어>aerial <u>cableway</u>

감수 의견으로 기구축 자료에서 제시된 대역어와는 다른 형태의 대역어가 제시된 것이 있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단선식’의 대역어는 기구축 자료에서 2개로 제시되었으나 감수 결과 ‘single trolley system’은 삭제되었다. 백과사전이나 전문 분야 사전 검색 결과 해당 용어는 통용되지 않으며 ‘overhead single line system’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또, ‘가공^삭도’의 경우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대역어 ‘aerial rope way’의 띄어쓰기를 ‘aerial ropeway’로, ‘aerial cable way’를 ‘aerial cable way’로 수정하였다.

5. 결론

이 연구는 그간 여러 곳에서 구축하여 유통되어 온 분야별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용어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비할 대상이 되는 용어는 교통 관련 용어의 성격을 지니는 『항공 사고 용어』, 『항공 용어 사전』, 『철도 용어 사전』, 『항만 용어 사전』에 실린 21,326개였다. 이 가운데에 1만 개 이상을 ① 원어, ② 정의문, ③ 분야 정보, ④ 사용 예시(용례), ⑤ 관련 용어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갖추어 정비하고 각 부분의 정보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이 지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 지침을 수정·보완하였고, 연구진들의 작업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만들어 보조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집필자로 보조 연구원들을 등록하고 참여율에 따라 용어를 배분하여 정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집필이 완료된 용어는 공동 연구원에게 배정하여 검토와 보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검토가 완료된 용어는 감수 위원에게 검토를 받고 감수 내용을 연구진 내에서 논의하여 적절히 정비 내용에 반영하고 책임 연구원이 최종 검토와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용어를 선정하였다.

감수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감수 작업은 검토가 완료된 용어를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엑셀 파일로 검토한 후 시스템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차후 연구진이 감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한 감수는 전문 분야 감수 위원들에게 내용에 관한 감수를 받는 것이었다. 감수는 용어, 원어, 전문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대역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감수 결과 주로 용어, 전문 분야 분류,

정의문, 관련어, 대역어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 사항들을 연구진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이어서 실시한 감수는 용어에 대응하는 원어, 정의문과 사용 예시에 원어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의 이 원어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감수에는 한자어 전문가와 영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 감수를 실시한 결과로 잘못된 한자 정보를 상당수 바로잡을 수 있었으며, 영어의 철자 오류, 대소문자의 사용, 사용된 어휘의 부적절성 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비 결과를 국어학 및 국어사전의 관점에서 표현의 방식, 표현 내용, 정보 제시 방법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에 관한 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하여 정의문의 문장 구조, 관련어 또는 계열어와의 통일성을 고려한 정의문의 제시, 문장의 문법성 여부 및 자연스러움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부분의 수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비 작업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10,004개의 용어가 정비가 되었으며 이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철도 용어 사전』에서 가장 많은 5,832개가 정비되었고, 『항공 용어 사전』에서 3,130개를 정비하여 그다음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항만 용어 사전』에서 1,028개, 『항공 사고 용어 사전』에서 14개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정비된 용어 10,004개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① 건설/교통(5,069개) > ② 기계(1,617개) > ③ 지구과학(819개) > ④ 전기/전자(534개) > ⑤ 물리학(484개) > ⑥ 사회과학(354개) > ⑦ 재료(349개) > ⑧ 정보/통신(334개) > ⑨ 화학(133개) > ⑩ 환경(123개) 등의 차례로 용어의 수가 많았다. 이를 통하여 이번 정비 과업을 수행한 결과 위 분야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언중들의 언어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용 예시의 구축이었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쓸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것들이다. 사용 예시를 모두 확보하여 정비 완료된 용어는 10,004개로 목표치의 100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사용 예시는 대부분이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공공 기관 등의 누리집에 실린 안내 글 또는 공개 자료, 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특허 자료,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에서 찾은 것으로 모두 공적인 언어 사용을 충분히 대표하는 것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이번 정비 사업의 결과로 한국어 언어 자원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물은 언증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학문의 발전이나 인공 지능·자동 번역 등 언어 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정비 사업의 결과물은 일반 언증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 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공 언어, 사전학, 사회 언어학, 언어 교육학 등과 접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여러 내용을 학계에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용어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와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번 과업을 통해서 정비하고 구축하는 정보는 『우리말샘』 등의 국어사전의 미등재어 보완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에는 아직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정비를 통해서 확보된 다량의 인용례는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의 실제 쓰임을 보여 주는 용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이번 정비 사업이 결과물은 국어사전의 보완 또는 구축에 활용되어 국어사전의 질적인 개선과 양적인 확장을 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이번 과업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된 정보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개선 등을 비롯한 다른 공공 언어를 비롯한 언어 개선 사업에 참고 자료가 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언어 개선을 하는 데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전문 용어 표준화 또는 개선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으나 각 분야마다 기준이 같지는 않아서 통합

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서 정비된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앞으로 전문 용어의 구축, 정비, 표준화를 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섯째, 이번 과업은 공공 언어의 확립과 개선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성과물이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당장은 용어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국어 화자들이 두루 참고하여 공공 용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 언어가 갖추어야 할 바를 어떻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밑천을 얻게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관점을 투영하여 추진한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일반적인 한국어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 예시 등을 참고해 가며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비된 용어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강미영 언어정보과장

국립국어원 이현주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박민희 연구원

<연구 참여자>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학교)

공동 연구원: 조재형(전남대학교), 조경순(전남대학교), 최지영(이화여자대학교), 이수진(전남대학교),
유하라(성균관대학교), 임태운(남부대학교), 최윤(강원대학교), 선한빛(전남대학교)

보조 연구원: 최옥정(전남대학교), 김다솔(전남대학교), 강은진(전남대학교), 이유미(전남대학교),
고상미(전남대학교), 하현정(전남대학교), 이지성(전남대학교), 오지수(전남대학교),
전철한(전남대학교), 박정은(전남대학교), 조하진(전남대학교), 김서홍(전남대학교),
미즈카이 유카리(전남대학교), 런 멩지에(전남대학교)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3년 2월 27일

발행일: 2023년 2월 27일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2년 분야별 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